

碩士學位論文

20세기 전반기 한국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2003年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專攻

朱 恩 鏡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李 昌 九

20세기 전반기 한국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Korean Cosmetic Culture of the first period of the 20th century

2002年 11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專攻

朱 恩 鏡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李 昌 九

20세기 전반기 한국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Korean Cosmetic Culture of the first period of the 20th century

이 論文을 藝術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2年 11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專攻

朱 恩 鏡

朱恩鏡의 藝術學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2年 11月

審査委員長_____ ⑩

審査委員_____ ⑩

審査委員_____ ⑩

초 록

개항에 따른 문호개방을 시작으로 밀려오는 외래문화의 영향으로 전개된 한국의 전통사회가 근대 사회로 변화하게 되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서 변화, 발전된 화장문화에 대한 연구는 바로 우리나라의 사회의식, 민족의식, 미의식의 표출이며 시대적 문화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본 논문은 20세기 전반기 한국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화장문화의 변화가 사회·문화적 요인들의 반영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20세기 이전 한국 화장문화를 살펴보고, 20세기 전반기의 시대적 배경을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들로 크게 분류, 화장품 산업발달과 관련시켜 화장문화의 배경을 분석하고 이러한 상황이 화장문화에 끼친 구체적인 영향을 통해 그 변천과 특징을 고찰하였다. 여기서 화장문화라 함은, 화장행위와 화장품 등을 포함하여 그에 관련된 지식과 정서, 사회 문화적 현상까지를 말한다.

화장이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된 이래 우리 민족이 일찍부터 매우 높은 미의식을 가지고 남녀 모두 아름다움을 가꾸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는 사실은 단군신화에서부터도 나타나 화장문화가 있었다는 흔적을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아름다운 육체에 아름다운 정신이 깃든다는 영육일치사상과 하얗고 티없는 피부를 선호하는 백색피부호상사상이 깊이 뿌리 박혀 얼굴을 단정히 가꾸고 몸을 청결히 유지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이것을 단장(丹粧)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고유의 화장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꾸밈의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어휘로서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개화기 이후부터 일본으로부터 화장이라는 낱말이 유입되어 상용어가 됨으로써 차츰 얼굴화장만을 가리키는 야

용(治容)류의 멋내기가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개항을 맞은 조선사회가 갑오개혁과 더불어 서양과의 문화적 접촉이 시작된 이래 수천 년을 지속하여 온 한국 화장문화는 변화의 양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특히 20세기 전반기 한국 화장문화는 무엇보다도 화장 행위의 주체인 여성에 관련된 교육의 확대와 그에 따른 여성의 사회적 진출, 시대적 가치인식의 변화, 경제·산업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세기 전반기는 전통적으로 화장이 기생들의 전유물처럼 취급되어져 온 기존의 인식이 차츰 변하게 되는 시기로 점차 신여성, 가정주부들에게도 확대되었다.

20세기 전반기에 이르러 한국 화장품 산업은 커다란 변화를 겪는다. 20세기 전까지의 자가자급경제체제와 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점, 화장품의 제조방법 등의 한계로 개항 이후 재래 화장품 산업이 쇠퇴되나 화장품 발전사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갑오개혁 이후 오늘의 우리 화장품 공업발전의 초석을 이룬 박가분을 비롯한 다른 국산화장품들이 제조되고, 1930년~1940년대에 들어서 설립된 한국인 화장품회사들의 존재는 화장품의 산업화와 발전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허가절차나 시설기준, 품질검사 없이 가내수공업 규모로 화장품을 제조하였다. 당시의 화장품 판매는 점포판매가 높고, 분매 방식의 판매가 생겨났고, 좌상, 방물장수와 매분구 등을 통해 유통되었다. 또한 화장품광고가 신문·잡지 지면을 장식하면서 화장문화가 일반인에게까지 보다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쳐 화장문화를 촉진시키는 매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20세기 이전 고려시대부터 기생의 분대화장과 여염집 부인의 옅은 화장으로, 조선시대에는 유교적 도덕관념과 내외사상의 영향으로 여염집 여성과 기생의 화장으로 이원화되었는데, 이 시대부터 차별화된 화장방식을 통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입장이 드러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세기 전반기 화장문화에도 이어져 신식화장품과 신식화장법이 도입되면서 이러한 화장문화가 신식화장과 전통화장의 이원화로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한다. 신식화장법이 유행하면서 분이 뽀얗게 발라지고 입술연지색이 짙어지고 향수와 비누의 향내가 강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신식화장법의 유행은 가속되지 않고 대중화에 한계에 직면했는데 그 원인은 주로 신여성과 직업여성들인 기생과 창녀, 영화배우 등에 의해서 먼저 유행되었기 때문이다. 일부 신여성들의 자유연애 예찬과 이에 대한 비난으로, 신식화장을 한 여성들은 바람둥이 또는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으로 지칭되기도 했다. 여염집 여성들은 그들과 구분되기 위해서 더욱 화장을 기피함으로써, 종래 기생 등의 화장과 여염집 여성의 화장구분이 더욱 심화된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한일합방 이후 민족적 각성을 가져와 개화풍이 곧 일본풍이라고 여겨 일본에 대한 반발이 신식화장의 유행을 저해시켰고 또한 대중매체의 기사들을 분석해 보면 박화장, 옅은 화장, 점잖은 화장을 연일 강조하고 모던걸이라고 불리던 신여성들의 유행 추종현상을 대부분 좋지 않게 보고 사회의 지탄의 대상으로 삼았기에 신식화장이 대중화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까지 단장의 의미를 지녔던 화장은 장식의 의미로 바뀌면서 얼굴, 피부손질, 옷차림, 장신구, 머리모양 등 토탈 패션으로서의 화장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목 차

초 록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범위 및 방법과 용어 정의	3
3. 연구 내용	5
II. 20세기 전반기 한국 화장문화 배경에 대한 고찰	6
1. 20세기 이전 한국 화장문화의 사적 고찰	6
1) 상고시대의 화장문화	6
2) 삼국시대의 화장문화	7
3) 고려시대의 화장문화	12
4) 조선시대의 화장문화	15
2. 20세기 전반기의 시대적 배경	19
1) 정치·경제·사회적 배경	19
2) 사상·종교적 배경	25
3) 문화·교육·대중매체적 배경	27
3. 20세기 전반기 한국 화장품 산업 발달	30
1) 한국 화장품 시장과 유통구조	30
2) 한국 화장품 제조와 회사 설립	33

Ⅲ. 20세기 전반기 한국 화장문화의 변천과 특징	38
1. 20세기 전반기 한국 화장문화의 변천	39
1) 개화기(1876~1910) 화장문화	39
2) 1910년대(1910~1919) 화장문화	45
3) 1920년대(1919~1929) 화장문화	47
4) 1930년대(1930~1940) 화장문화	56
5) 1940년대(1941~1945) 화장문화	62
2. 20세기 전반기 한국 화장문화의 특징	65
1) ‘화장(化粧)’ 용어의 유입과 화장개념의 변화	65
2) 전통화장문화와 신식화장문화의 이원화	68
Ⅳ. 결 론	72
참 고 문 헌	76
ABSTRACT	83

표 목 차

<표 1> 일본제 화장품 광고량	58
-------------------------	----

그림 목 차

그림 1. 彩畵漆篋(출처: 韓國化粧文化史)	11
그림 2. 修山里 古墳壁畵 西壁 貴婦人(部分)	11
(출처: 한국미술전집 4)	
그림 3. 雙楹塚 羨道東壁 車馬人物圖(部分)	11
(출처: 한국미술전집 4)	
그림 4. 安岳 2號墳 玄室東壁壁畵 飛天(출처: 고구려 文化展)	11
그림 5. 安岳 3號墳 前室西側室南壁 女主人公像	11
(출처: 한국미술문화의 이해)	
그림 6. 楊柳觀音圖(출처: 고려 불화)	14
그림 7. 水月觀音圖(출처: 한국미술문화의 이해)	14
그림 8. 水月觀音圖 細部	14
그림 9. 白衣水月觀音圖(출처: 고려불화)	14
그림 10. 白衣水月觀音圖 얼굴	14
그림 11. 趙胖夫人像(출처: 한국의 美 20)	18
그림 12. 河演夫人像(출처: 韓國化粧文化史)	18
그림 13. 美人圖(출처: 韓國化粧文化史)	18
그림 14. 美人圖(출처: 한국의 美 20)	18
그림 15. 미인화장(출처: 조선복식미술)	18
그림 16. 방물상 부부(출처: 한국의 보부상)	37
그림 17. 방물장수(출처: 한국 생활문화 100년)	37
그림 18. 朴家粉(출처: 韓國化粧文化史)	37
그림 19. 윤고려(1907년경)(출처: 여성동아)	44
그림 20. 이숙경(1900년경)(출처: 여성동아)	44
그림 21. 엄비의 양장착용 모습	44
(출처: 사진으로 본 한국백년)	
그림 22. 박에스터(출처: 한국여성양장변천사)	44
그림 23. 하란사(출처: 한국여성양장변천사)	44
그림 24. 호시 광고(출처: 매일신보 1919.5.27.)	46
그림 25. 朴家粉 광고(출처: 동아일보 1922.2.17.)	52

그림 26. 朴家粉 광고(출처: 동아일보 1924.1.12.)	52
그림 27. 朴家粉 광고(출처: 동아일보 1924.11.12.)	52
그림 28. 朴家粉 광고(출처: 동아일보 1925.9.26.)	52
그림 29. 朴家粉 광고(출처: 동아일보 1926.11.7.)	52
그림 30. 설화분 광고(출처: 동아일보 1921.5.12.)	53
그림 31. 미용백분과 서울분 광고(출처: 동아일보 1922.3.5.)	53
그림 32. 연부액 광고(출처: 동아일보 1922.1.7.)	53
그림 33. 수백분 광고(출처: 동아일보 1927.5.26.)	53
그림 34. 구라부 백분 광고(출처: 동아일보 1923.1.27.)	54
그림 35. 구라부 크림 광고(출처: 동아일보 1923.1.27.)	54
그림 36. 구라부 백분, 크림 광고	54
(출처: 동아일보 1924.10.14./11.23.)	
그림 37. 오리지나루 광고(출처: 동아일보 1924.10.14.)	55
그림 38. 미소노 쫄보미 광고(출처: 동아일보 1926.11.15.)	55
그림 39. 미소노 백분(출처: 동아일보 1926.11.17.)	55
그림 40. 미소노 백색미안수 광고(출처: 동아일보 1926.11.20.)	55
그림 41. 최승희(출처: 한국 생활문화 100년)	59
그림 42. 윤심덕(출처: 영화 「사의 찬미」 중에서)	59
그림 43. 1930년대 후반 「여성」 잡지의 표지	59
(출처: 서울에 탄스홀을 허하라)	
그림 44. 「별건곤」 1930년 12월호 삽화	59
(출처: 서울에 탄스홀을 허하라)	
그림 45. 헤치마 코롱 광고(출처: 매일신보 1940.1.9.)	60
그림 46. 클로버 립스틱 광고(출처: 매일신보 1940.1.15.)	60
그림 47. 금학향유 광고(출처: 매일신보 1940.1.15.)	60
그림 48. 카오 샴푸 광고(출처: 매일신보 1940.2.13.)	60
그림 49. 시세이도 광고(출처: 매일신보 1940.2.14.)	61
그림 50. 헤치마 코롱 광고(출처: 매일신보 1940.2.20.)	61
그림 51. 단조치크 광고(출처: 매일신보 1940.2.29.)	61
그림 52. 동보백분 광고(출처: 매일신보 1945.3.28.)	6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화장은 인간의 근본적인 미적 욕구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인간생활의 시작과 함께 발생하여 그 시대를 대변하는 가치와 사고의 시각적인 문화유산으로 각기 그 문화권 속에서 독특하게 형성된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반영하면서 발전해 왔다.

아름다움의 개념은 인간의 미의식이 작용하면서 선별·선호·선택되어 온 것이며 미의 기준에는 절대성이 있을 수 없고 단지 상대성·계층성·시대성·주관성이 서로 혼용되어 있다.¹⁾ 즉 한 사회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미적 이미지는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풍조에 결정적으로 의존하며 사회적 분위기는 다시 경제, 정치적 상황, 사회, 문화적인 요인들의 변화에 민감하게 변동, 변화한다고 추론할 수 있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화장문화에 대한 연구는 그 시대, 그 문화권 내에 반영된 정신적 기반과 미의식을 유추함과 동시에 사회, 교육, 문화, 그리고 그 시대적 상황 등과의 불가분의 관계를 전제로 한 포괄적인 연구로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자가 한국 화장문화를 20세기 전반기의 시점에서 보려는 것은 이 시기가 중요한 개혁과 변화의 시기이며 신문화의 출발점이고 본격적으로 화장문화가 도입되어 근대 화장문화를 열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나타난 근대성의 발달과정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제도적, 사상적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으며²⁾ 그 연구의 중심은 역사와 이념 및 인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1) 민중예술위원회(1985), 「삶과 멋」, 공동체, p.80.

특히 화장문화 분야에서는 이 시기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연구가 부족한 형편이고 기존 연구들의 범위가 동·서양 화장문화의 역사적 연구로 시간적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됨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부분적인 연구들이 문화사, 사회사 등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역사적 시대배경과의 관계연구가 미흡하여 상호관련성을 이해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80년대 후반부터 조금씩 연구되기 시작한 한국 화장문화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전완길³⁾, 조효순⁴⁾, 송민정⁵⁾, 김선영⁶⁾, 조은별⁷⁾, 박보영⁸⁾, 최영경⁹⁾, 김희숙¹⁰⁾, 나현숙¹¹⁾, 김용미¹²⁾, 홍인자¹³⁾, 이소연¹⁴⁾ 등에 의해서 연구되어 왔고 전통화장 분야에

-
- 2) 愼鏞廈(1987), 「한국근대사회사상사연구」, 서울: 一志社
 - 李光麟(1986), 「韓國開化思想研究」, 서울: 一潮閣
 - 李光麟(1986), 「韓國開化史의 諸問題」, 서울: 一潮閣
 - 3) 全完吉(1987), 「韓國化粧文化史」, 서울: 悅話堂
 - 4) 조효순(1988), 「한국풍속사연구」, 서울: 일지사
 - 5) 송민정(1990), 「우리나라 전통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김선영(1992), 「東·西洋 化粧文化에 關한 研究(14C~18C를 中心)」,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조은별(1995), 「20세기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박보영(1997), 「한국·중국·일본 여성의 색조 화장문화」,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9) 최영경(1997), 「한국여성의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여성잡지 미용 기사를 중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김희숙(1998), 「20세기 한국과 서양의 여성 化粧文化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1) 나현숙(1999), 「韓國 化粧史(粉의 傳統史的 考察)」,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보건환경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김용미(2000), 「해방 이후 한국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3) 홍인자(2001), 「한국 화장문화의 연대기적 변천특성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4) 이소연(2001), 「傳統 化粧材料의 變遷과 化粧法에 關한 研究」, 대구가톨릭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집중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본 논문은 20세기 전반기 한국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화장문화의 변화가 사회·문화적 요인들의 반영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20세기 이전 한국 화장문화를 살펴보고 20세기 전반기의 시대적 배경을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들로 크게 분류, 화장품 산업발달과 관련시켜 20세기 전반기 한국 화장문화의 배경을 분석하고 이러한 상황이 화장문화에 끼친 구체적인 영향을 통해 그 변천과 특징을 살펴보는데 있다.

또한 한국의 전통 화장문화가 개항에 따른 문호개방을 시작으로 밀려오는 외래문화의 영향을 어떻게 수용, 변화, 발전하여 왔는지에 대한 연구는 바로 우리나라의 사회의식, 민족의식, 미의식의 표출이며 시대적 문화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과 용어 정의

1)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 있어서의 시대적 범위는 20세기 전반기 즉 병자수호조약을 체결한 1876년 개항하게 되는 시점에서부터 일제시대를 거쳐 1945년 해방되기까지의 한국 화장문화를 다루고자 한다.

당 시대는 우리나라 기존의 전통문화에 서구 문물이 새로 도입되고 사회전반에 걸친 개혁, 여성교육과 여성의 사회적 진출 증가, 대중매체 등의 영향으로, 이

에 따른 화장문화의 변화는 필연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은 문헌자료연구를 중심으로 화장문화 관련 기록을 통한 자료분석에 의해 이루어 졌으며, 대한 화장품 공업협회 한국 장업 50년사와 한국 장업사, 한국 복식사, 풍속사, 역사, 예술사, 문화사, 사회학, 교육학, 여성학 등의 관련 서적 및 선행연구 논문, 정기간행물을 주 자료로 하였다.

또한 변천과 특징을 고찰하는데 있어서 한국 20세기 전반기 화장문화의 사진 자료 및 출판물의 자료미비로 인한 연구의 한계점을 이 시기의 대중매체를 대변할 수 있는 신문과 잡지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특히 신문, 잡지 등에 등장한 인쇄광고 즉 화장품 광고를 화장문화를 읽는 도구로 사용한 사회 문화적 연구로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20세기 전반기의 시대적 배경을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들로 크게 분류, 화장품 산업발달과 관련시켜 20세기 전반기 한국 화장문화의 배경을 분석하고 한국의 전통 화장문화가 개항에 따른 문호개방을 시작으로 밀려오는 외래 문화의 영향을 어떻게 수용, 변화, 발전하여 왔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2) 용어 정의

20세기 전반기 한국 화장문화를 서술함에 있어, 본 연구자는 먼저 화장문화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다.

화장문화란 화장품을 바르고 매만져 곱게 꾸미는 행위로 신체의 아름다운 부분은 돋보이도록 하고, 약점이나 추한 부분은 수정하거나 위장하는 수단¹⁵⁾인 화장행위와 화장품 등을 포함하여 그에 관련된 지식과 정서, 사회 문화적 현상까지가 화장문화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15) 두산세계대백과사전 EnCyber(2002), 두산동아

3. 연구 내용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I 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범위 및 방법과 용어 정의, 연구내용을 제시하였다.

제 II 장에서는 20세기 전반기 한국 화장문화의 형성 배경을 규명하기 위하여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 상고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한국 전통 화장문화를 현존하는 문헌과 유물을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20세기 전반기 화장문화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둘째, 20세기 전반기의 시대적 배경을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들로 크게 분류, 화장문화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정치·경제·사회적 배경, 사상·종교적 배경, 문화·교육·대중매체적 배경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20세기 전반기 한국 화장문화를 화장품 산업의 발달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 III 장에서는 이러한 화장문화의 배경이 끼친 구체적인 영향을 통해 20세기 전반기 화장문화의 변천을 개화기(1876~1910)까지를 한시기로 그 이후 일제시대는 10년 단위로 세분화하여 해방이 된 1945년까지 고찰해 본 후 20세기 전반기에 들어와 형성된 화장문화의 특징을 분류하고 그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제 IV 장 결론에서는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여 본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Ⅱ . 20세기 전반기 한국 화장문화 배경에 대한 고찰

1. 20세기 이전 한국 화장문화의 사적 고찰

1) 상고시대의 화장문화

단군신화(檀君神話)¹⁶⁾에 의하면 향료가 고조선 사회의 한국인들의 생활과 밀접했을 것이며, 이외에도 피부를 희고 아름답게 가꾸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즉 한민족의 첫 주거지가 단목(檀木) 근처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향나무인 박달나무를 신성하게 여기는 등 향료가 생활과 밀접했음을 보여 주고, 단군신화 속의 환웅이 곰과 호랑이에게 준 쑥과 마늘의 용도는 미용사적 측면에서 보면 피부를 희게 하는 미용재료로 사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햇빛을 피하기 위한 동굴에서의 생활로 볼 때, 그 당시 우리 조상들이 이미 백색피부를 선호했을 것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한반도 동북방의 읍루(挾婁)인들은 돼지기름(豚膏)을 발라 추위를 견디어냈다는 기록이 있고¹⁷⁾, 말갈(靺鞨)인들은 인뇨(人尿)로 손과 얼굴을 씻었다는 기록도 있는데¹⁸⁾, 피부의 동상 예방과 연화(軟化)에 효과가 높은 돼지기름과 미백효과가 큰 인뇨를 세제로 사용하는 것은 그 당시 이미 이들의 효과를 알고 이용하였으며 피부미용·보호 및 백색 피부 손질을 중시한 사실을 뒷받침하여준다.

부족국가시대 낙랑의 유물로 채협총(彩篋塚)에서 출토된 채화칠협(彩畵漆篋)

16) 檀君神話「三國遺事」, 卷一

17) “好養豕 食其肉 衣其皮 冬以豕膏塗身 厚數分 以御風寒” 「三國志 東夷傳」

18) 「後漢書」 東夷傳

<그림 1>에 나타난 인물상을 살펴보면, 머리가 정돈되어 있고, 이마를 넓히기 위하여 머리털을 뽑은 흔적이 뚜렷하고, 눈썹이 굵고 진하게 그려진 점으로 보아 이 시대에 최소한 단정한 몸차림이 생활의 기본이었던 듯하다.¹⁹⁾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마를 넓게 보이게 하려는 인위적인 노력과 여인들의 진한 눈썹화장으로 보아 그 시대에 이미 어떠한 미의식이 존재하여 화장문화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밖에 원시화장이라고 할 수 있는 문신(文身)이 마한(馬韓)과 변진(弁辰)인들에 의해 행해졌었다고 중국의 『위지(魏志)』에 기록하고 있다²⁰⁾. 마한·변진인의 문신은 자자(刺字)만이 아니라 장신구, 색깔 무늬 등의 장식이 포함된 멋내기 수단이자 주부(呪符)였고 신분·계급을 표시하는 방편이었다고 생각된다. 즉 한국인 최초의 정형화된 치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²¹⁾

2) 삼국시대의 화장문화

한국 화장문화의 역사는 상고시대 이래 여러 유물과 유적을 통해 고찰해 볼 수 있는데, 국가의 체제를 완전하게 갖춘 삼국시대에 이르러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중국의 발달된 화장문화가 가세되어 본격적으로 형성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일본서기(日本書紀)』²²⁾에는 6세기 백제의 의박사(醫博士), 채약사(採藥師) 등이 일본에 파견되었고, 7세기 초 고구려 승려 담징이 채색, 종이, 홍화의 종자 등

19) 全完吉(1987), 『韓國化粧文化史』, 서울: 悅話堂, p.20.

20) 『魏志』, 馬韓 - “男女時時有文身” 弁辰 - “男女近倭亦有文身”

21) 全完吉(1987), 위의 책, p.23

22) 『日本書紀 (下)』(1987) 岩波書店

을 전했고, 7세기 말에는 신라 승려 권성(權成)이 연분을 제조하여 큰상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삼국의 선진 문화가 일본에 타 문물과 함께 화장문화도 전수해 주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삼국 중 중국과 지리학적으로 가장 인접한 고구려는 신라나 백제에 비해 중국 화장문화의 유입이 빨랐을 것이다. 일본의 화장 역사를 담은 구하사(久下司)의 『화장(化粧)』의 기록에 의하면 “연지(胭脂)가 일본에 들어온 것은 추고천황(推古天皇) 18년(610) 가을 9월로 고구려의 중 담징이 그 종자를 가지고 왔다.”²³⁾고 전하고 있는데 고구려에서는 연지의 제조기술이 발달하였고 이미 일찍부터 유행하여 일본에 연지를 전파할 정도로 보편화된 풍속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과 함께 고구려의 화장문화는 출토된 고분벽화에서 그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다. 평남 용강군 수산리 고분벽화 서벽 귀부인상(平南 龍岡郡 修山里 古墳壁畫 西壁 貴婦人像)<그림 2>와 쌍영총 연도 동벽 차마인물도(雙楹塚 羨道 東壁 車馬人物圖)<그림 3>에서 보면, 연지와 눈썹화장을 하고 있으며, 머리모양도 다양하게 멋을 내고 있는 여인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수산리 고분벽화의 주인공은 귀부인인데 반해 쌍영총 벽화 속 여인들은 여관(女官)혹은 시녀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연지화장을 한 모습으로 보건대, 그 당시 상하계층 신분에 관계없이 화장화가 대중화되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안악 2호분 현실동벽벽화(安岳 2號墳 玄室東壁壁畫)<그림 4>의 하늘을 나는 비천도 아래에 산연화 공양을 지내고 있는 3명의 여성의 아름다운 얼굴에서, 안악 3호분 전실서측실남벽 여주인공상(安岳 3號墳 前室西側室南壁 女主人公像)<그림 5>의 풍만한 얼굴과 눈초리가 약간 올라간 가느다란 눈매의 연지와 눈썹화장한 왕비의 얼굴에서도 고구려의 미의식을 짐작하게 한다.

23) 久下司(1970), 『化粧』, 日本法政大學出版局, p.245.

백제는 평야지대에 일찍이 정착하여 축적한 경제적인 부를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문화를 창조하였고, 중국과 문물을 교류하였을 것으로 믿어진다. 일본의 옛 문헌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에 따르면, 화장할 줄 모르고 화장품도 만들 줄 몰랐던 일본인들이 백제로부터 화장품의 제조기술과 화장기술을 익혀 비로소 화장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백제의 화장기술과 화장품의 제조기술이 매우 높은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수서(隋書)』²⁴⁾에는 백제인들의 화장경향이 시분무주(施粉無朱, 분은 바르되 연지를 바르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화려한 색조화장을 하는 중국 여인들에 비해 백제인들이 옅고 은은한 화장(淡粧)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²⁵⁾

신라는 고구려나 백제보다 늦게 문화를 꽃피웠지만 화장문화는 고구려와 백제보다 화려하게 발달했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신라의 추대된 첫 임금 박혁거세와 왕비 알영(閼英)의 일화에 관한 기록이나, 미소년 중에 선발된 화랑(花郎)이 분화장과 아름답게 치장한 사실(美貌男子粧飾), 그리고 장발이 미인의 요건으로 가채(加髢)가 발달한 점 등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신라인들의 생활 전반에 ‘아름다움의 추구’라는 미의식이 깔려 있음을 엿볼 수 있고, 이러한 아름다운 육체에 아름다운 정신이 깃든다는 영육일치사상(靈肉一致思想)으로 인하여 일찍이 신라시대부터 화장기술 및 화장품 제조기술이 발달하였다.

중국 문헌 『신당서(新唐書)』에는 신라 부녀의 화장을 “분대(粉黛)하지 않고 미발(美髮)을 머리에 두르고 주채(珠綵)로서 장식하였다.”²⁶⁾고 했다. 이는 중국

24) 『隋書』, 卷八十一, 列傳, 第四十六

25) 全完吉 외(1995), 『한국 생활문화 100년』, 서울: 장원, p.32

26) 『新唐書』, 卷二十, 列傳, 第一四五. “不粉黛率美髮以續首以珠綵飾之”

조효순(1988), 『한국복식풍속사연구』, 서울: 일지사, p.376,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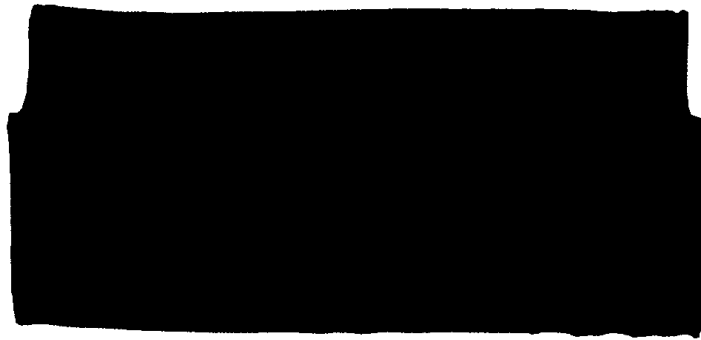
기록임을 감안할 때 중국의 짙은 화장에 비해 신라의 화장이 옅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삼국사기(三國史記)』에 김유신의 누이 문희(文熙)가 옅은 화장을 했다는 기록에 의해 뒷받침된다.

또한 삼국시대 화장문화의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불교의 전래로 신라인의 불교신봉은 향을 신성시하고 목욕재계(沐浴齋戒) 관념을 중시하는, 신분에 관계없는 향의 대중화와 목욕의 대중화를 만들어냈다. 즉 신라인들은 그들 나름의 미의식에 종교교리가 뒷받침되어 발전된 것이다.

신라의 삼국통일(668)을 전후하여 화장과 화장품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확연히 구분 지을 만한 기록은 없으나 문무왕(文武王) 4년(664)에 “부녀의 모든 복제(服制)를 당(唐)의 것과 동일하게 하라” 27)는 왕명이 내린 것으로 미루어 보면, 통일 이전의 옅은 화장 위주의 화장 경향이 통일 이후에는 중국 여인들의 짙은 색조화장을 모방하여 화장 경향이 다소 화려해졌을 것이다. 이는 중국과의 빈번한 문물교류로 의복뿐만 아니라 화장문화에도 큰 변화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 통일 이후 정국이 안정되고 문물이 융성해져 당시 생활이 다소 사치해졌으므로 그 영향을 받아 의상, 장신구, 화장 등도 매우 화려하고 사치해졌을 것이다. 흥덕왕(興德王) 9년(834)의 ‘복식금제(服飾禁制)’ 28)목적이 사치의 방지와 계급별 복식을 규제한 것이고 보면 통일신라의 극에 달한 사치의 정도가 매우 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27) 『三國史記』, 卷六, 新羅本紀, 第六, 文武王條.

28) 『三國史記』, 卷四, 雜誌, 色服, 新羅條.



<그림 1> 彩畵漆篋(출처: 韓國化粧文化史)



<그림 2> 修山里 古墳壁畵 西壁 貴婦人
(部分)(출처: 한국미술전집 4)



<그림 3> 雙楹塚 羨道東壁 車馬人物圖
(部分)(출처: 한국미술전집 4)



<그림 4> 安岳 2號墳 玄室東壁壁畵
飛天(출처: 고구려 文化展)



<그림 5> 安岳 3號墳 前室西側室南壁
女主人公像 (출처: 한국미술문화의 이해)

3) 고려시대의 화장문화

고려는 태조(太祖)가 신라의 정치제도와 문화전통을 계승하는 정책을 시행하였고, 종교 역시 불교를 계속 신봉함으로써 화장문화 또한 전승, 발전되었으며 영육일치사상의 미의식도 그대로 이어졌다. 그 결과 고려의 화장문화는 외형상 사치해졌고, 내면으로는 탐미주의(耽美主義) 색채가 농후해졌다. 고려 중기 이후 고려사회는 원의 침입 등 여러 차례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정복국가로서 멀리 사라센·유럽·러시아까지 진출했던 원과 밀접한 교류를 가짐으로써 정치적으로는 오욕의 장이라 할 것이나 문화적으로는 고려문화의 전기가 되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진보하였다.

재가인(在家人)을 위한 출가법 팔계재(出家法 八戒齋)중에 ‘도식향만(塗飾香鬢), 부저화영락(不著華嬰珞), 불향도신(不香塗身), 부저향훈의(不著香薰衣)’ 등의 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계층에 한정되긴 하지만 신체와 머리카락, 옷에 향을 뿌리거나 발랐으며, 옷에 향내를 스미게 하였고, 갖가지 보석장식을 패용하고, 여러 가지 화장품을 겹겹이 진하게 발랐기 때문에 일부 사찰에서 이러한 차림의 신자들의 출입을 금지시킨 예의 기록으로, 이는 통일신라시대에 화려하고 사치스러워진 경향이 고려시대에 일부나마 더욱 사치스러워져 이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았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서궁(徐兢)의 『고려도경(高麗圖經)』에는 고려 귀부인의 화장에 대해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 ‘부인의 화장은 향유(香油) 바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분을 바르되 연지는 칠하지 아니하고 눈썹은 넓게 그렸다’²⁹⁾고 하는바, 이렇게 고려 여인들의 화장 경향에 대한 서궁의 표현과 출가법 팔계재에 나타난 그것이 이처럼 차이를 보이는 까닭은 중국인(宋人)인 서궁의 시각에서 고려 여인들의 화

29) 徐兢, 『高麗圖經』, 卷二十一

장이 중국인에 비해 옅은 화장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견해와 동시에 고려 여인들의 치장이 신분에 따라 달랐음을 시사하고 있다. 신분에 따라 화장이 다른 대표적인 예로서, 기생(妓生) 중심의 분대화장(粉黛化粧)을 들 수 있다. 분대화장을 간단히 요약하면 분을 도포한 듯이 하얗게 많이 바르고, 눈썹을 가늘게 가다듬어 또렷하게 그리고, 머릿기름은 반질거릴 정도로 많이 바르는 것이 특징이다.³⁰⁾ 고려 초기에 교방(敎坊)에서 기생이 훈련되고 분대화장법도 교육됨으로서 이러한 분대화장은 조선시대 말기까지 약 천여 년간 기녀들의 변함없는 화장법으로 이어져³¹⁾ 기생이라는 직업여성의 상징이 되며 여염집 부인들의 화장은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평소에 화장을 삼가고 분대화장을 기피해 옅은 화장을 함으로써 이원화되었는데, 이러한 이원화하는 고정관념은 고려시대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다.

고려시대 여인의 화장에 대한 실물자료는 찾아보기 힘든데, 이 시대에는 왕비 진영(王妃眞影) 제작이 성행하여 특히 공민왕(恭愍王)이 손수 그렸다는 노국공주상(魯國公主像)이 전해질 뿐³²⁾ 전무하다시피한 형편이어서 단지 불교의 성행으로 미루어 불상(佛像)이나 불서(佛書)의 존재에서 그 당시 여인들의 화장 경향을 짐작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림 6>의 양류관음도(楊柳觀音圖)에서 보듯이 탐미적인 색채가 농후한 아름다움이 당시 화장 경향과도 상당한 관계를 갖으리라 생각되고, <그림 7, 8>의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를 보면 관음을 향해 공양을 바치는 모습에서 공양물을 들고 가는 여인상의 얼굴을 흰 피부의 길고 가느다란 눈썹과 연지 화장한 얼굴로 묘사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림 9, 10>의 가늘고 길게 그려진 눈썹과 붉은 연지 화장한 백의수월관음도(白衣水月觀音圖)를 통해서도 고려 후기 친원 권문세가의 귀부인 얼굴이 이러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겠다.

30) 전완길(1987), 앞의 책, p.46.

31) 대한화장품공업협회(1986), 「한국장업사」, 약업신문, p.3.

32) 中央日報(1992), 季刊美術, 「人物畫」, p.189.



<그림 6> 楊柳觀音圖
(출처: 고려 불화)



<그림 7> 水月觀音圖
(출처: 한국미술문화의 이해)



<그림 8> 水月觀音圖 細部



<그림 9> 白衣水月觀音圖
(출처: 고려불화)



<그림 10> 白衣水月觀音圖 얼굴

4) 조선시대의 화장문화

조선시대는 유학적 도덕관념과 남성 위주의 사회구조 속에서 고려 말의 사치와 퇴폐풍조에 대한 강한 반발로 사치스런 옷차림과 장신구, 화장 등에 대하여 금지령이 내린 바, 이렇듯 당시의 남성들은 많은 규제를 통해 사대부가의 여인들에게 점잖고 운치있는 용모를 종용, 진한 화장을 금기시켰고, 복식 또한 단정함이 우선이었다. 여기에는 장기간에 걸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인 이유도 또한 화장문화 발달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 지배층의 유교 사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이르러 완전히 하나의 계층을 이룬 기생과 궁녀 등 직업 여성들의 상징으로 깊이 뿌리 내려진 분대화장에 대한 기피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다. 여염집 여인들은 평소에는 화장을 하지 않았으나 손님을 맞을 때나, 나들이 할 때는 반드시 화장을 했었다. 그러나 이때의 화장도 기녀와 구분되는 옅은 화장이었으며 조선 말엽에는 복숭아 빛 분³³⁾이 나오면서 여염집 여인들은 흰색 분을 바르는 기녀와 차이를 두고자 의식적으로 이것을 바르는 경우가 많았다.³⁴⁾

한국인의 고유 미의식인 영육일치사상이 조선시대에 이르러 외형상 크게 변모한다. 이상적인 여인상은 곧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보다는 아내로서의 지(智)·덕(德)·체(體)가 삼위일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상의 변화는 이상적인 여성상의 변화를 가져와 얼굴에 분바르고 눈썹 그리고 연지를 그리되 본래의 생김새를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름답게 가꾸도록 하였으며, 화장한 모

3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1982), 『한국민속대관 2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출판사, p.282.

34) 趙孝順(1988), 『韓國服飾風俗史研究』, 서울: 一志社, p.387.

습이 화장하기 전보다 확연하게 달라 보이면 야용(冶容)이라 하여 경멸하였다. 이와 반대로 남자들이 예찬한 미인상은 주로 아름답다고 소문난 명기(名妓)의 생김새를 조합시킨 모습이다.

조선시대 이상적인 여인상<그림 11, 12>와 이상적인 미인상<그림 13, 14, 15>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빙허각 이씨(憑虛閣 李氏)의 『규합총서(閨閣叢書)』에는 희고 옥 같은 피부가 이상형이었음을 알려 주는데 당시의 부녀자들은 색조화장보다는 평상시의 기초 화장에 주력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화장을 하였다.³⁵⁾ 또 이 책에는 머리꾸는 품, 눈썹화장 십미명(十眉名)과 입술연지, 곤지 유래도 소개하고 있다. 숙종 연간의 작가 미상의 의인체 소설 『여용국전(女容國傳)』에 등장하는 백분, 연지, 머릿기름, 밀기름, 향수, 미안수 등의 화장품과 거울, 족집게, 모시실, 양치대, 수건, 휘건, 경대, 빗, 대야 등의 화장구³⁶⁾등 모두 20여 가지가 모두 기초화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³⁷⁾ 이와 같이 조선시대 색조화장에 대한 규제는 평상시의 기초화장에 대한 강한 관심으로 나타나 희고 기미, 주근깨와 흉터가 없으며 투명한 피부, 즉 옥 같은 피부이기를 희구하였다. 이러한 피부로 가꾸기 위하여 미안수·꿀찌꺼기·윤안향밀³⁸⁾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노력은 규합총서에 소개된 면지법³⁹⁾에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머리 단장에는 각별하여 검고 술이 많아야 좋다고 했고 특히 양반의 여인은 가르마를 곧게 타야 했다. 늘 머리

35) 憑虛閣 李氏(1759~1824), 『閨閣叢書』에 보면 面脂法, 香身方, 黑髮長潤法 등이 나온다.

36) 『한국장업사』, p.10

37) 『女容國傳』은 한문으로 씌어진 것이나, 『女容國平亂記』를 『女容國傳』으로 漢譯한 것인지, 『女容國傳』을 알기 쉽게 『女容國平亂記』로 옮긴 것인지 확실치 않다.

閔濟 譯(1996), 女容國傳, 韓國漢文小說選,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38) 밀납이 주원료이며, 향을 가미하였고 얼굴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

39) “거울에 얼굴이 거칠고 터지는데 달걀 세 개를 술에 담가 김 새지 않도록 두껍게 봉하여 네 이레 두었다가 얼굴에 바르면 트지 않을뿐더러 윤지고 옥 같아진다. 얼굴과 손이 터서 피나거든 豬趾脂에 槐花를 섞어 붙이면 낫는다.”

중앙에 가르마를 타면 가리마 부분이 그을리므로 희고 곧은 흰 살색 선을 연출하기 위해서 백분을 살짝 얹은 실을 가리마 선 위에 살짝 통겨 정숙한 하얀 선을 나타내기도 했다.⁴⁰⁾

조선시대의 화장재료가 어떤 규모의 시설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품질 수준으로 제조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으나 다만 임진왜란 직후에 일본에서 발매된 ‘朝の露’란 화장수의 광고문안 가운데 ‘조선의 최신 제조방법으로 제조한...’이란 표현으로 미루어, 양질의 화장품을 제조하였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⁴¹⁾ 제조기술 측면에서 보면 조선시대의 화장품은 대부분 가내수공업 규모로 제조되었다.

조선 조정에서는 고려시대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장(鏡匠) 및 소장(梳匠) 외에 분장(粉匠)과 향장(香匠)이 관장으로서 존재하였다. 향장은 국가행사용 향과 궁중용 향수, 향료를 제조하였을 것이며, 분장 역시 궁중의 각급 여인용 분, 외명부용 분과 기생용 분을 제조하였을 터인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기능으로 보아서 연지와 머릿기름 따위도 제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 화장품과 화장도구는 분전(粉廬)같은 화장품 생산청이 있어 전문상점에서 판매되기도 하였으며⁴²⁾ 방물장수들이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판매하였다. 방문판매는 숙종(肅宗, 1675~1720)시절에 있었으며 유교관의 영향으로 인해 여성들의 외출이 제한된 시대적 분위기 때문에 당시엔 주로 매분구(賣粉廬)⁴³⁾나 방물장수 같은 방문판매에 의하여 화장품과 화장구가 전달된 듯하다.

40) 윤연중, *화장문화*, 한국복식2천년, 국립민속박물관, p.259.

41) 全完吉(1987), 앞의 책, p. 56.

42) 東國輿地備考, 第二卷, 國譯 I, p.424. “粉廬은 넷으로 연회전이 동쪽 안팎에 들씩 있었고 그밖에도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었다.”, “화장품은 여러 장사가 다니며 팔기도 하고 앉아서도 팔았다.”

43) 매분구란 화장품과 화장구를 집집마다 방문 판매하는 여자로 『동계집(東溪集)』에 보면 肅宗 임금 때 경성사람 모氏의 종이 결혼하지 않고 분파는 일을 생업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

(全完吉(1987), 앞의 책, p.63과 『한국장업사』, pp.443~444 참조)



<그림 11> 趙胖夫人像
(출처: 한국의 美 20)



<그림 12> 河演夫人像
(출처: 韓國化粧文化史)



<그림 13> 美人圖
(출처: 韓國化粧文化史)



<그림 14> 美人圖
(출처: 한국의 美 20)



<그림 15> 신윤복, 「미인화장」
(출처 : 조선복식미술, p.37)

2. 20세기 전반기의 시대적 배경

국말(國末) 조선은 1876년 개항 이후 서구문물이 도입되면서 많은 사회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 시기는 우리 나라의 전체 역사인 오천년 중에서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에 비해 많은 변혁이 있었다. 안으로는 실학 사상을 배경으로 개화사상이 대두되며 밖으로는 세계 열강의 정치적 간섭으로 많은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된 시기였다. 화장문화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문화적 산물로 문화 변동과 함께 변화하므로 본 장에서는 화장문화를 변화시키는 요인인 시대적 배경을 정치·경제·사회적 배경, 사상·종교적 배경, 문화·교육·대중매체적 배경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정치·경제·사회적 배경

개화(開化)란 1880년대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전반을 지배한 사상 혹은 운동을 나타내는 표어로서 개명화(開明化), 혹은 문명화(文明化) 즉 선진외국의 문화를 받아들여 재래의 것과는 다른 문화를 창조(創造)함을 뜻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⁴⁴⁾ 중세 봉건사회를 타파하고 근대사회를 건설한 구미제국(歐美諸國)은 동방제국을 점차 정복하고 극동(極東)에 까지 손을 뻗치게 되었으니 1842년에는 아편전쟁(阿片戰爭)을 계기로 중국을 개항케 하게 되었으며 곧이어 1854년에는 일본의 쇄국을 깨뜨렸다.⁴⁵⁾

44) 이정옥(1973), 「개화기의 우리나라 복식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7.

45) 유희경(1981), 「한국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403.

이와 같은 통상요구(通商要求)는 조선에도 이어져 인도양을 거쳐 동진(東進)하여 북상하는 영국과 프랑스, 태평양을 건너 서진(西進)하여 오는 미국, 시베리아를 거쳐 남하하여 오는 러시아 등 여러 나라가 조선의 문을 두드렸던 것이다.⁴⁶⁾ 밖으로 이러한 통상요구가 계속되는 시기의 조선의 사정은 1863년 철종의 뒤를 이어 12세의 어린 나이인 고종이 즉위하였고 이에 따라 왕의 부친으로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이 집권하고 있을 때였다. 흥선대원군은 안으로는 전제 왕권을 재확립하기 위한 정책을 과단성 있게 추진하였고 밖으로는 개항(開港)을 요구하는 선진열강(先進列強) 제국에 대해서 철저한 쇄국정책을 썼는데 이것에 대한 정치적 의도는 국내 정치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왕권의 유지와 보호를 위한 필연적인 것이었다.⁴⁷⁾ 이에 평화적 교섭에 의한 통상이 불가능함을 깨달은 서양제국(西洋諸國)은 무력으로라도 이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었던 때에 고종(高宗) 3년(1866) 천주교 금지령에 의한 병인박해(丙寅迫害)가 있었는데 이로 인한 9명의 프랑스 신부의 처형은 병인양요(丙寅洋擾)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를 뒤이어 고종 8년(1871) 미국은 제너럴 셔어먼호(General sherman)의 소각 사실을 구실 삼아 강화도에 침입하여 신미양요(辛未洋擾)가 일어나게 되었다.⁴⁸⁾ 이러한 2차에 걸친 양요 이후 대원군의 쇄국 의지는 더 강해져 갔으나 계속된 대원군의 집정은 유럽 세력의 반발, 호포제 실시로 인한 반대 세력의 성장, 민심의 이반(離叛), 민씨를 지지하는 세력의 성장 등으로 고종 10년(1873) 대원군은 정권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고종은 11월 3일을 기하여 친히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한편 일본은 1854년 이후 명치유신(明治維新)으로 쇄국정책을 버리고 서양의

46) 이기백(1978), 『韓國史新論』, 서울: 一潮閣, p.314

47) 백종기(1981), 『한국근대사연구』, 서울: 박영사, p.25

48) 이선근(1978), 『한국사』 [最近世編], 서울: 을유문화사, p.246~247.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조선에 대한 침략의 기회를 살피고 있었다. 마침내 일본은 구미열강이 조선에 진출하기에 앞서 1875년에 함선을 강화도에 침입시켜 운양호사건을 일으키고 조선의 문호를 개방하도록 압력을 가한 후에 1876년에는 불평등 조약인 병자수호조약(丙子修護條約) 즉, 강화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조선의 주도권을 장악하려 하였다.⁴⁹⁾ 이때부터 한국의 전통사회는 근대사회로 변화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고종 17년(1880) 6월에는 김홍집이 수신사가 되어 일본에 갔는데 김홍집은 일본의 놀라운 발전상과 세계 정세의 동향(動向)을 살피고 개화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 다음해인 1881년에는 신사유람단(紳士遊覽團)을 일본에 파견하였는데 이들은 신 문물제도를 시찰하였으며 조선에 돌아와 14종 33책의 방대한 견문기록을 남겨 국제 사회의 인식과 식견을 넓히는데 큰 성과를 남겼다.⁵⁰⁾ 같은 해에 60명의 유학생을 파견하여 근대 무기 제조법과 근대적 군사 훈련법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군제(軍制)에 영향을 주었으며⁵¹⁾ 1883년 친선사절단의 미국파견, 서방인의 내한 등은 서방 세계와의 국제적 접촉을 가능하게 했다. 미국에 파견되었던 개화파 인사들은 돌아와서 고종에게 시찰보고서를 올리면서 전통 복식의 근대적 개혁까지도 건의하였다. 그러나 개화파들의 복제개혁이 보수적인 관료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자, 고종은 1884년 5월에 양쪽의 의견을 종합한 의복개혁(衣服改革)을 단행하였는데 이것이 갑신 의제개혁(甲申衣制改革)이다.⁵²⁾ 1884년 개화인사들은 실질적인 자주, 독립을 이룸과 동시에 근대적인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보려는

49) 이기백(1978), 앞의 책, p.319~321.

50) 이기백(1978), 앞의 책, p.321~322

51) 이현종(1982), 19세기 후반의 한국, 『大世界史』, 서울: 태극문화사, p.326~327.

52) 유희경(1980), 『한국복식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626~628.

국정개혁(國政改革)에 눈을 돌렸다. 이들 박영효, 홍영식, 서재필, 서광범, 박영교 등은 개화자강(開化自強)과 독립자존(獨立自存)의 애국 애족 정신으로 정치개혁(政治改革)을 도모하여 마침내 고종 21년(1884) 10월 우정국의 개국 축하연을 계기로 정변을 일으켰다. 그러나 청군의 개입으로 정변은 3일 천하로 끝나고 중심 인물들은 일본, 미국 등으로 망명하였다.

갑신정변(甲申政變)에 이어 1894년에는 안으로는 유교적 전통사회를 부정하고 개혁 정치를 요구하며, 밖으로는 외국의 자본주의 침략에 대항하는 동학운동(東學運動)이 일어났다. 동학운동은 비록 실패했으나 안으로는 갑오경장(甲午更張)을 실시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근대화에 한발 다가가게 하였으며 밖으로는 일본이 조선정부에 대해 정치적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조선에 대하여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고종 31년(1894) 6월 갑오경장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 개혁은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부분에 걸쳐 단행되었는데 화장문화도 예외가 아니었다.

정치면에서는 청과의 종주(宗主)관계를 끊고 개국연호를 사용하며 왕실과 정부를 분리하여 궁내부와 의정부로 나누고 의정부 아래 8아문(衙門)을 두어 국정을 분담시켰으며 과거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새로운 관리 임용법을 실시하여 신분의 구별 없이 인재를 등용하게 하였다. 그리고 사법권을 행정권에서 분리시켜 국민의 체포와 구금, 재판을 경찰관과 사법관만이 하도록 하였다. 지방은 8도(道) 23부(府)로 개편하였다.

경제면에서는 재정의 일원화를 통한 국가 재정의 정비(整備)에 주안점을 두었다. 또, 은(銀) 본위의 화폐제도(貨幣制度)의 채택과 조세의 금납제(金納制)를 시행하고 도량형을 개정 통일하였다.

사회면에서는 신분제도를 폐지하였다. 즉 양반, 중인, 상민, 천민 등의 신분계

급을 타파하고 공사노비제(公私奴婢制)를 혁파(革罷)하였다. 또, 남녀의 조혼을 금하여 남자는 20세, 여자는 16세가 되어서야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고 죄인의 처벌에 있어서 연좌법(緣坐法)을 폐지하였다. 이러한 갑오경장의 일환으로 1895년 11월 15일에는 단발령(斷髮令)을 공포하였고, 이와 함께 의복제도로는 외국제(外國製)를 수용하여도 무방하다고 하였다.⁵³⁾

그러나 유교 윤리가 일상 생활에 깊이 뿌리내린 조선 사회에서 개화파를 제외한 모든 유림과 일반민중들은 단발령을 신체적 박해뿐만 아니라 인륜의 파멸로 인식하여 복제개혁 때보다 더욱 단호하게 맞섰다. 이와 같이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게 되자, 고종은 자신이 먼저 단발하여 강력하게 단발령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개화 정책을 일본화로 인식해왔던 유생 및 민중들은 단발령을 계기로 그동안 누적되어 온 반일의식이 폭발하여 의병을 일으키는 등 강력한 대일(對日) 적개심을 표출하였다. 일본의 침략적 내정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단행된 아관파천(俄館播遷)이 일어난 이후 국민들은 자주독립권(自主獨立權)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개혁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국민의 여론이 대한제국(大韓帝國)을 성립시키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마침내 1897년에는 연호를 광무(光武)로 고치고 국호를 대한(大韓)이라고 정하였으며 9월에는 고종이 황제로 즉위함으로써 대한제국(大韓帝國)이 성립됨을 공포하였다.⁵⁴⁾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포츠머스 조약을 맺어 러시아, 영국, 미국 등 여러 나라로부터 한국에 대한 특수이익을 인정받았고, 한국을 보호국화 하는 조약 체결을 강행하기 시작하였다.⁵⁵⁾ 이에 따라 일본은 황제와 대신들을 위협하여 광무 9년(1905) 11월에는 을미조약(乙未條約)을 체결하였다. 을미조약의 체결로 조

53) 백성록(1971), 『고종32년』, 서울대학교 고전총서, 경인본, p.255.

54) 이선근(1978), 『한국사』, 현대편, 서울: 을유문화사, p.855~856.

55) 이기백(1978), 앞의 책, p.364~367.

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이나 다름없었으며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는 말살되었다.⁵⁶⁾ 고종 11년(1907) 6월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리자 고종은 밀사를 파견하여 우리 나라의 억울한 사정을 여러 나라에 알리도록 하였다. 그러나 한국이 외교권이 없다하여 참석을 거절당하자 이위종은 신문을 통하여 일본의 침략행위(侵略行爲)를 공격하고 국제회의의 실정을 폭로하여 국권을 회복하려 하였으며 이준은 자살하였다.

이 사건 이후 일본은 고종을 퇴위시키고 광무 11년 순종(純宗)을 황제로 즉위시켰으며 연호를 융희(隆熙)라 고쳤다. 그 후 일본은 융희 4년(1910) 8월 29일 한일합방(韓日合邦)을 체결하였고 조선의 국권(國權)은 완전히 상실되었다.⁵⁷⁾

국권의 침탈 후 일본의 침략에 대한 반항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양반 유학자들 중에는 국왕에게 상소를 올려 항일정책(抗日政策)을 쓰게 함으로써 일본에 반항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자살의 길을 택하는 사람도 많았다. 한편 적극적으로 의병을 일으켜 무력항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⁵⁸⁾

이러한 고난 속에 1918년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 대통령 윌슨(Wilson)이 제창한 민족자결주의(民族自決主義)의 영향을 받아 세계 각국의 약소민족들이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에 영향을 받아 망명활동과 비밀결사에 의지하거나 교육활동이나 종교운동에 의지하던 우리 나라의 민족운동은 전국적인 대규모 민족운동으로 표면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국도 독립할 수 있다는 희망이 민족운동을 일대 독립운동의 전개로 몰아가 마침내 고종의 장례일(葬禮日)을 이틀 앞둔 3월 1일에 한국 역사상 최대의 민족운동인 3·1운동이 시작되었다.

3·1운동은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으나 국내에서는 지하항전(地下抗戰)으로, 해

56) 강완석(1981), 「개항에서 庚戌國恥에 이르기까지의 일본침략의 특질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3.

57) 이선근(1978), 앞의 책, 현대편, p.972~976.

58) 이기백(1967), 「韓國史新論」, 서울: 일조각, p.403~404.

외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大韓民國 臨時政府)를 조직하여 항일 투쟁을 계속하게 하는 민족 해방운동(解放運動)의 토대가 되었다.⁵⁹⁾

일본은 다시 대륙에까지 손을 뻗쳐 1931년에는 만주사변(滿洲事變)을 일으켰고 일본 강점기인 1937년에는 중일전쟁(中日戰爭)을 일으켰으며, 마침내 1941년에는 미·일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이러한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 나라 사람과 생산물을 착취하여 황국신민(皇國臣民)을 강요하고, 창씨(創氏)하게 하여 일본식 이름을 가지게 하였으며, 신사참배(紳士參拜)를 강요하였다. 1942년에 일본은 30세 이하 조선 청년에게 일본어 보급방침을 세우고, 조선어 사용을 금하였으며, 1944년에는 여자 정신대를 동원하였다. 1945년 연합군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여하자 천황(天皇)은 무조건 항복하고 이에 우리 나라는 일본으로부터 36년만에 해방(解放)이 되었다.

2) 사상·종교적 배경

개화사상(開化思想)이란 근대화한 서양의 신문명(新文明)을 받아들여 개화하려던 사상을 말하며 이 개화사상은 사회제도 전반에 걸쳐서 많은 영향을 미쳤다. 개화사상의 발생에는 조선 후기 실학(實學)을 계승하고 중국에서 서양과학을 소개하는 서적들을 들여온 흐름이 큰 역할을 하였다. 실학은 성리학의 공허(空虛)와 위정자(爲政者)의 무능(無能)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과 실사구시(實事求是), 경세치용(經世致用), 이용후생(利用厚生)을 표방해오던 실학자와 보수집권층이 대립하면서 낡은 봉건제도를 개편하여 나라를 부강케 하고 위기에 처해있는 조국의 자주독립(自主獨立)을 쟁취하려던 19세기 후반기의 선구적인 개화 사상가를 연결

59) 이기백(1967), 앞의 책, p.433~439.

하는 계기가 되었다.⁶⁰⁾

천주교(天主敎)는 조선 후기 실학자들에 의해 새로운 문화운동의 일환으로써 수용되었으나 천주교의 교리는 유교적인 조선의 상황과 상반되어 정부는 천주교를 사교(邪敎)로 규정하고 금지령(禁止令)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도 천주교는 19세기 이후 하층계급이나 일반 부녀자 층의 신자들도 많이 늘어나게 된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남녀가 함께 있는 교회에서 자신의 존중함을 알게 하였고 외출도 마음대로 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남녀동처(男女同處)의 해방감과 남녀평등의 여명기적(黎明期的) 여운을 맛보게 하였다.⁶¹⁾

기독교(基督教)는 1884년 9월 의료선교사인 알렌이 입경(入京)하였고, 1885년에는 언더우드 목사와 아펜젤러 목사가 입경함으로써 조선에 들어오게 된다. 이는 천주교를 탄압했던 대원군(大院君)도 정권에서 물러났고 국내지식인층 사이에 개화 사상이 대두하여 이를 받아들이기에 국내외 정세가 용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⁶²⁾

또한 기독교의 선교사(宣敎師)들은 천주교의 순교사를 교훈으로 직접적인 전교 방법을 피하고 교육사업이나 의료사업 등 간접적인 방법을 중심으로 하였다.⁶³⁾ 이와 같이 기독교는 자유와 평등의식을 고취시키고 여성도 남성과 같이 중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함으로써 단순한 교리 전파를 넘어서서 기독교를 통한 사회적 관습(慣習)의 변화(變化)를 초래하였다.

동학(東學)은 1860년 최재우에 의해서 창시된 사상으로써 서구 열강의 힘의 원

60) 백종기(1981), 앞의 책, p.100.

61) 이기백(1978), 앞의 책, p.239.

62) 김정란(1981), 「한말 기독교 사회의식과 항일의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5~20.

63) 이효재, 김주숙(1978), 「한국 여성의 지위」,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83.

천을 서학(西學)이라고 보고 서학에 대항하는 새로운 민족종교(民族宗教)를 만들어 포교(布教)함으로써 당시의 대내외적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 사상이었다.⁶⁴⁾ 동학에서 주장하는 인내천 사상이란 인간과 하늘 즉 신을 한가지로 생각한 것으로 이런 사상 속에는 인간의 존엄성(尊嚴性)을 내세워 계급이나 남녀의 차별을 부인하는 평등의 이념을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천주교와 기독교의 전파, 동학의 보급 등의 영향으로 남녀평등 사상(男女平等思想)이 전파되고 여성의 개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이 의식의 변화는 정치, 언론, 종교, 문화 등의 각 분야에서 계몽운동(啓蒙運動)으로 전개되며 이러한 계몽운동의 영향으로 우리 나라의 복식과 화장문화는 변화하게 된다.

3) 문화 · 교육 · 대중매체적 배경

1876년 문호개방(門戶開放) 이후 우리 정부에서는 근대적인 새로운 문화도입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개화지식인(開化知識人)을 관리로 등용하여 근대체제를 수립하였다. 동시에 개화지식인은 새로운 지식을 얻어 관사(官史)로 등용되려면 그에 수반하는 새로운 지식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⁶⁵⁾ 정부에서는 고종 23년(1886) 육영공원(育英公院)을 설립하여 서양의 새 학문을 교육하도록 하였다. 갑오경장 이후 신교육(新教育)을 실시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 제도를 만들어 소학교, 중학교, 사범학교, 외국어학교 등의 각급 관립학교(官立學校)를 설립하였다. 이에 반해 선교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기독교학교가 세워졌는데 이는 여자와 서민을 포함한 국민 전반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서

64) 신용하(1980), 『한국 근대사와 사회변동』, 문학과 지성, p.14.

65) 민병하(1979), 『근대 교육제도의 실시』, 서울 600년사, p.619.

큰 의의를 가진다. 선교사가 설립한 학교로는 고종 22년(1885) 아펜젤러가 설립한 배재학당(培材學堂)을 기점으로 다음해에 경신학교(敬新學校)와 우리 나라 최초의 여자교육기관인 이화학당(梨花學堂)이 설립되었으며 1906년에는 고종황제 엄황비귀가 주축이 되어 명신학원을 설립하였고 뒤 이에 정신, 숭실, 배화, 숭의 여학교 등이 설립되었다.⁶⁶⁾ 당시 설립된 기독교 계통의 학교를 보면 1908년까지 25개교가 설립되었으며 이중 14개교가 여학교였다.⁶⁷⁾ 이러한 여학교에서 교육받은 여성들은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여성관, 전통적인 여성상으로부터 해방된 독립적인 인간상을 추구하게 된다.

또한 민간에서도 일부 선각자(先覺者)들에 의해 사립학교가 세워졌는데 고종 20년(1883)에 세워진 원산학사를 시초로 광무 2년(1898) 민영환이 설립한 흥화학교(興化學校), 광무 8년(1904) 상동(尙同)교회 목사 김덕기에 의해 설립된 청년학원(靑年學院) 등이 있으며 1898년에는 우리 나라 최초의 민간 여학교인 순성학교(順成學校)가 설립되었다.⁶⁸⁾ 이와 같이 근대화된 학교 교육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여 한국인의 의식구조와 의, 식, 주 등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1910년에는 일본이 우리 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뒤에 이러한 사립 학교의 대부분을 폐교시켰는데 그것은 이 학교들이 민족운동의 본거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청년들은 해외에 유학하여 학문을 배워오고 이렇게 배워온 학문으로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발전시킬 방도를 연구하였으며 학생들에게 민족 정신을 불어넣어 주기도 하였다.⁶⁹⁾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언론은 민중에게 개혁의 필요성과 개화사상을 계발시키

66) 안승주(1982), 『신한국사』, 학문사, p.315~316.

67) 이효재, 김주숙(1978), 앞의 책, p.83.

68) 이기백(1978), 앞의 책, p.391~393.

69) 이기백(1996), 『우리 역사의 여러 모습』, 서울: 일조각, p.160.

는 한편 민중의 요구를 대변하는 계몽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언론 계몽으로는 1896년에 서재필이 창간한 독립신문(獨立新聞) 이래 황성신문(皇城新聞), 제국신문, 만세보, 대한민보 등의 신문과 「소년」을 비롯한 각종 학회보 등이 있었다.⁷⁰⁾ 이 중에서 독립신문은 국민의 계몽을 목적으로 창간되었으므로, 한문을 모르는 일반 국민도 읽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국문전용(國文全用)으로 창간되었으며, 읽기 쉽도록 띄어쓰기를 시작하였고, 적자를 보면서도 값을 저렴하게 하였다. 또한 영문판 『The Independent』도 발행하여 한국의 사정과 한국 민족의 입장을 세계에 알리며 국민에게 나라안 사정을 알게 하고 국민에게 외국의 사정을 알게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황성신문은 1898년 9월 남관익, 유근 등에 의해 창간된 것으로써 그 후 계속하여 애국 계몽기간에도 언론계몽활동에 종사하여 크게 기여하였으며⁷¹⁾ 언론기관들은 국민의 정치의식을 계몽 양양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우리 민족은 일제의 식민지 차별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교육의 기회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문맹자가 증가하였다. 이에 우리 나라는 전국 각지에 야학을 설립하였으며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은 민족 언론으로써 문맹퇴치 운동에 앞장서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항과 함께 우리 나라에는 사회 전반에 걸친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1876년 이후의 문호개방(門戶開放)은 전통적인 관습(慣習)과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켜 이는 화장문화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70) 이광린(1984), 「역사로 본 한국 문화사-근대편」, p.257~258.

71) 이광린(1984), 위의 책, p.172~173, p.258.

3. 20세기 전반기 한국 화장품 산업 발달

1) 한국 화장품 시장과 유통구조

산업혁명 과정을 거쳐 먼저 근대화를 이룬 유럽에서는 19세기에 이르러 화장품도 근대화 과정을 거친다. 즉 공산품 개념의 화장품이 생산되고 상품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조선 왕조는 근대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은 물론 근대화의 필요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후진국이라고 경멸했던 일본이 유럽의 새 기술을 도입하여 무장하고, 유럽 열강들과 함께 문호개방을 강요하는 바람에 드디어 1876년에 개항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랜 쇄국정책 끝에 문호개방을 함으로써 다른 재래산업이 쇠퇴한 것과 마찬가지로 재래 화장품 산업도 쇠퇴하고 말았다. 그 원인에는 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때문으로, 시장이 생산자의 잉여 생산품을 팔거나 교환하는 장소로 이용되었는데, 생활 필수품 이외의 교역은 매우 미미하였다.

또 화장품의 제도가 용이하므로 대부분 자가제조 혹은 문중(門中)제조하였다. 옛날에는 대가족제도였으므로 화장품뿐 아니라 대부분의 생활 필수품을 자가제조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가자급경제(自家自給經濟)체제도 한 원인이 되는데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부족한 물품의 구입을 억제하고 생산품 위주로 생활하였기 때문에 화장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생활 필수품을 자가제조하였고, 이 때문에 수요가 한정되었으므로 기술의 혁신이 완만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관장(官匠) 및 사장(私匠)이 생산품을 시전(市廛)에 팔더라도 상표나 포장을 등한한 원인도 있다. 여기에 상업에 대한 경멸, 화장품 행상에 대한 천대, 멸시가 확대되어 조선

말기 화장품 산업은 위축되었고 산업화과정이 더디게 된 원인이라 할 수 있겠다.

개항 이후, 개화의 물결이 물밀 듯이 쏟아져 들어왔을 그 당시 화장품 시장도 크게 달라졌다. 당시 서울 한복판인 운종가(雲從街·종로 네거리)에는 나라에서 직접 관리하는 육주비전(六注比廛)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일반 서민들의 생활필수품을 사고 파는 종합시장과 같은 성격이었다. 지금의 동대문시장이나 남대문시장의 전신이기도 하다. 이 육주비전 중에는 황화전(黃貨廛)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여자들이 즐겨 찾는 거울, 분, 바늘 따위를 취급하여 서민층 여인들이 이곳을 찾아와서 향장품을 구입했다.⁷²⁾ 이외에도 화장품 전문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분전(粉廛)이라는 것이 따로 있었다.

서민층이 애용했었던 분전은 당시 서울에 여러 곳에 있었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영회전 동쪽 안팎에 둘씩 있었는데 흔히 방물전(方物廛)이라고도 부르는 이곳에서는 분, 연지, 색실 등을 취급했으며 여자 장사가 돌아다니면서 팔거나 앉아서 팔기도 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당시 지방에는 상점이 거의 없었고 빈약하나마 분과 연지 등을 판매하는 화장품 가게가 있어도 하찮고 아주 보잘 것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방물장수들이 가지고 다니던 방물에서 연지, 분, 참빗, 거울 등의 향장품들을 구입했다.

그러면 개화 이전 조선의 상업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규제를 강화하여 규모가 큰 것은 점포의 크기, 상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국가가 통제하였다. 서울의 중심가인 운종가에는 규격이 통일된 시전(市廛)이 설립되어 90여 종의 물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였다. 그 중에서도 비단, 무명, 명주, 모시, 종이, 어물을 파는 점포가 가장 번성하였는데, 후에 이를 육의전(六矣廛)이라 불렀다. 이 시전의 규모는 대단하였는데, 육의전을 예로 들면 육의전 가운데 한 전은 일곱 개의 전방으

72) 김덕록(1998), 『화장과 화장품』, 답게, p.49.

로 구성되어 있되, 각 전방은 또 각 열 개의 상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1전은 70개의 점포로 구성되었는데, 1개의 점포는 대체로 한 칸(폭이 여섯 자)이었다.

정부가 시전 건물을 지어 상인에게 빌려주고, 상인은 조정에 필요한 물품을 납세 대신에 대주는 등 정부가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한편, 정부의 잉여물품을 팔았다. 도시생활자의 생필품을 조달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어용(御用) 상점이었던 셈이다. 이처럼 시전 상인들은 정부와 유착되어 있었는데, 관장(官匠)들과도 밀접하였다. 관장은 근무시간 이외에 제조한 물품을 시전 상인들에게 넘겨주었는데, 부를 축적한 시전 상인들은 사장(私匠)을 직접 고용하거나 영향력 아래에 두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시전 가운데 분전(粉塵)이 있었다. 분전은 백분만을 취급하는 점포가 아니라 각종 화장품과 화장용구, 그리고 장신구를 취급하는 점포였다. 한양에만 설치되어 있던 이 분전을 통해 방물장수와 매분구가 보조기능을 담당하는 가운데 전국에 화장품을 공급했다. 그러던 것이 문호개방과 동시에 재래시장이 붕괴하면서 분전마저 기능을 상실,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은 크게 위축되었다. 물론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화장품의 산업화 과정의 더뎠던 이유로 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원인과 자가자급의 경제체제 등의 제 원인들에다 일본의 경제적 침투뿐 아니라 조선 말엽 상인들의 부패와 횡포가 극에 달한 때문이기도 하고, 오히려 그 보다는 취급하던 국산 상품의 품질이 박래품(舶來品)이라 불리던 수입상품과 견줄 때 뒤떨어졌기 때문이라고도 보아진다.

당시의 화장품 유통경로는 점포와 좌상(坐商), 방물장수와 매분구 등 예전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다른 점은 점포판매가 늘고, 분매(分賣) 방식의 판매가 생겨난 점이었다.

일본이 일으킨 중일전쟁(1937)과 태평양전쟁(1941)으로 모든 물자는 귀해졌다. 통제경제가 실시되면서 상품 만들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아주 어렵게 원료를 구하여 화장품을 만들면 이번에는 담을 병이 없었다. 그래서 상인들은 크거나 규격이 일정치 않은 헌 병이나 항아리 따위에 크림이나 분을 덜어서 팔았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분매는 제조업자가 공장에 앉아서 파는 경우, 방물장수가 가가호호 방문하여 큰 병에 담은 화장품을 덜어 파는 경우, 백화점이나 잡화상에 내어놓고 손님에게 덜어 파는 경우 등 다양하였다. 이 분매는 모두가 물자가 귀했었던 이 시기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판매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다.

분매는 제조업자의 입장에서 규격화된 용기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었고, 값비싼 화장품을 사기 힘든 소비자 입장에서 신식화장품을 필요한 양만큼 구입하는 이점이 있어서 성행하였는데 러시아인들이 분매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러시아인 행상뿐 아니라 일본인, 한국인 행상들도 이처럼 큰 통을 지거나 리어카에 싣고 다니면서 둥둥 북을 치면서 팔았기에 '둥둥구리무'라는 말도 생겨났다. 그런데 구리무(크림)는 당시 최고의 인기제품이었다. 그 당시에는 옥 같은 피부, 즉 희고 맑고 깨끗한 피부 손질에 크림이 안성맞춤이어서 분과 함께 화장품의 대명사가 되었다.

2) 한국 화장품 제조와 회사 설립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한일합방이 이뤄진 후에는 중국 상품이 자취를 감추고 일제 화장품이 시장을 석권하게 된다. 일본으로부터 백분, 크림, 향수, 비누 등이 유입되었는데, 1920년대에는 유럽(주로 프랑스) 방면에서도 이들 화장품이 수입되었다. 이들 화장품의 대단한 인기는 우리 나라 화장품의 산업화를 촉진

시키는 자극제가 되었다. 박가분(朴家紛)의 등장이 그것인데 박가분은 우리 나라 관허(官許) 1호 화장품이자 다른 화장품의 제조를 유발시켰다.

박승직상점의 사업내용 중 면사, 면포의 판매 이외에 이색적인 것으로 박가분 제조 판매가 있었다.... 이 사업을 주관한 사람은 박승직의 부인인 정정숙이었다. 정정숙이 종로 4가 92번지의 자택에서 부업삼아 박가분을 제조하기 시작한 것은 1915년 4월이었다.

그 당시 화장품으로는 연지, 동백기름, 밀기름과 한장, 두장 날개로 판매하는 장분(張粉)이 있을 뿐이었다. 장분은 분식(납가루)와 활석가루를 반죽해 만든 것으로 판매는 주로 방물장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정정숙은 이러한 재래의 장분을 만들어 팔던 기술자 3명을 고용하여 화장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박가분 제조의 시작이었다.

박가분의 제조방식은 대체로 한국의 재래식 화장품 제조 공정을 모방하였으나 부분적으로는 정정숙의 새로운 아이디어도 첨가되었다. 박가분의 판매는 당시의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방물장수를 통한 가가호호 방문판매로 시작되었는데, 소비자들로부터의 반응이 좋아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소규모로 시작된 박가분제조본포는 1918년 8월 특허국으로부터 상표 등록증을 교부받음으로써 가내 수공업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었던 당시의 화장품 제조업계에서 선구적인 위치에 서게 되었다.

포목 거래처에 덤으로 주기도 했던 박가분은 여인네들의 귀여움을 받으면서 서울은 물론 전국적으로 유명한 인기 화장품으로 부각되었다. 1920년 8월 박승직 일가가 종로구 연지동 270번지로 가옥을 신축하여 이사한 후로 여직공만 30여 명으로 늘어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⁷³⁾

위의 『두산그룹사』의 기록에서 박가분의 등장, 제조방법, 규모, 선풍적인 인기를 확인하게 되는데 박가분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원인은 우선 사용하기 간편한 장점이 있었다. 납은 납독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지만 잘 발라지고 잘

73) 全完吉 외(1995), 앞의 책, pp.58~59.

퍼지는 특징이 있었다. 분꽃씨를 분말로 자가 제조하여 사용하던 당시로서는 대 환영할만한 신상품이었다. 두 번째는 가격이 저렴하였다. 한 갑의 출고가격이 42전 5푼, 소매가격 50전이었는데 몇 원 씩 하는 일제 백분에 비하면 아주 저렴한 가격이었다. 이 밖에 향을 첨가한 특징이 있었다. 초기에는 무향이었으나 사향을 첨가함으로써 외제 화장품 같은 인상을 깊게 심었다. 박가분 이외에도 미용백분과 서울분(1922년 2월 동아일보에 게재된 광고에는 '분식독 없는 고급원료와 고상순결한 향기로 만든'이라는 문안이 돋보인다. 그러니까 1920년에 유향분과 무연분이 제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이 제조·발매되고, 배달기름(머릿기름), 연부액(軟膚液, 미백로션), 유액(밀크로션), 연향유 밀기름 등도 잇따라 시판되었다.⁷⁴⁾ 이 화장품들은 제조 기술과 포장의 소위 신식 화장품을 모방한 것이어서 호평을 얻었는데 이 무렵의 화장품은 요즘처럼 기능이 세분되지 않고 있었다. 예를 들면, 1920년대에 동아부인상회에서 제조 발매한 연부액은 살갓을 부드럽게 하는 모범적 부료(膚料)요, 모범적 수(水)크림으로서 미안수로 손등약으로 바르라 하였고, 겨울 연부액은 세수한 후 얼굴에, 일한 뒤 손등에, 분바르기 전에, 얼굴 터진데, 기타 얼굴의 잡병에 바르도록 권하고 있으며, 조선부인약방의 금강액은, 여드름, 주근깨, 마른버짐, 어루턱이에 특효약이라 하였고, 유백금강액은 최량의 미백소로서 세안 후에 한 방울만 바르면 희고 고운 미인이 된다는 등 복합기능을 강조하였다. 신문에 광고한 이상의 화장품 외에도 가내수공업 규모로 생산된 상표없는 화장품들이 다수 판매되었다.

조선인들이 화장품 제조업에 대거 뛰어든 것은 1930년도부터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로 화장품을 만든 사람은 문영수씨의 피가몬드, 김동엽씨의 에레나 화장품, 임선환씨의 동보 구리무였다.⁷⁵⁾

74) 全完吉 외(1995), 앞의 책, p.60.

1940년대에는 일본의 화장품 회사들, 즉 제일화학, 아마스, 유키, 나리스, 구라브, 쇼남, 자생당 등이 진출했으며 한국인의 화장품회사로는 태양리화학을 비롯하여 대륙화학(최인재, 제트구리무), 군산장업(신일선), 동보화학, 동방화학, 광업화장품연구소(서석태, 서가분), 천애사(김성술, 나나화장품)등이 있었다.

이들 일본인 화장품회사와 한국인 화장품회사는 친목을 도모한다는 명분하에 원료 구입의 편의를 위하여 '조선화장품제조업조합'을 결성했다. 여기에 가입하지 못한 군소업자들은 따로 '조선정장품(整粧品) 제조업조합'을 결성했는데 여기에 가입한 주요 회사는 정미화장품(김영택, 아스타 화장품), 광명화장품(최광중, 송옥), 이실약장연구소(현철, 정미액)등이었다(이 두 단체는 광복 후 현재의 대한화장품공업협회의 전신이 되었다).⁷⁶⁾

이상과 같은 화장품회사의 존재는 화장품의 산업화와 발전에 기여하였다. 이때에는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했고 누구나 등록만 하면 제조판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화장품 업체가 생겨났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허가정차나 시설기준이나 품질검사 등이 전혀 없었던 때였으므로 가내수공업 규모로도 화장품을 제조하였고, 이로 인해 조잡품이 범람하였다.

75) 대한화장품공업협회(1998), 한국장업 50년사, p.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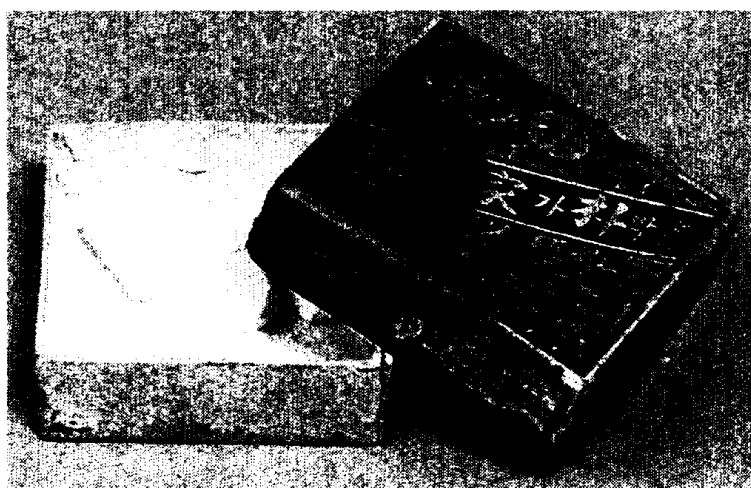
76) 全完吉 외(1995), 앞의 책, p.61.



<그림 16> 방물상 부부(출처: 한국의 보부상)



<그림 17> 방물장수(출처: 한국 생활문화 100년)



<그림 18> 朴家粉(출처: 韓國化粧文化史)

Ⅲ. 20세기 전반기 한국 화장문화의 변천과 특징

20세기 전반기는 화장문화의 유행 변천이 크지 않아 사실상 한시기로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었다.⁷⁷⁾ 그 원인으로서는 이 시기가 우리나라 화장문화의 개화기이자 화장·화장품의 개화기로 본격적으로 화장문화가 도입되기 시작하여 근대 화장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시발점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다.

게다가 한국 화장문화분야에서 20세기 전반기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연구가 미흡한 형편이고 여기에 화장문화에 대한 사진자료 및 출판물의 자료미비로 인하여 연구의 한계점이 분명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세기 전반기 한국 화장문화 배경에 대한 고찰 즉 20세기 이전 한국 화장문화 위에 정치·경제·사회·사상·종교·교육·문화·대중매체 등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역사적 시대배경과 화장품 산업발달의 관계연구를 통하여 20세기 전반기 한국 화장문화를 이해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상황이 화장문화에 끼친 구체적인 영향을 화장행위와 화장품 등을 포함하여 그에 관련된 지식과 정서, 사회 문화적 현상을 통해 그 변천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20세기 전반기 한국 화장문화의 변천과 특징을 고찰하는데 있어 이 시기의 대중매체를 대변할 수 있는 신문과 잡지 특히 화장품 광고를 화장문화를 읽는 도구로 사용한 사회 문화적 연구로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77) 최영경(1997), 「한국여성의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희숙(1998), 「20세기 한국과 서양의 여성 화장문화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홍인자(2001), 「한국 화장문화의 연대기적 변천특성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먼저 그 변천을 개화기(1876~1910)까지를 한 시기로 그 이후 일제시대는 10년 단위로 세분화하여 해방이 된 1945년까지 나누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20세기 전반기 한국 화장문화의 변천

1) 개화기(1876~1910) 화장문화

한국근대사에 있어서 개화기는 1876년 병자수호조약에 따른 개항으로부터 한일합방(1910)에 이르는 격변, 전환, 개혁의 시기이다. 근대화와 자주화가 시급한 국가적 당면과제였으며 신문화의 유입으로 전통문화가 정체되고 개혁과 전통고수를 두고 갈등이 심화되어 문화전반에 걸쳐 혼돈이 확산되었다.

갑오개혁 이후 신교육이 강조되고 기독교 전파와 서양교육의 보급은 여성교육의 중요성에 눈을 뜨게 했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특히 교육의 기회가 여성들에게 주어지면서 여성개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자극을 받아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896~1910년 사이에 설립되어 교육, 자선, 실업의 장려를 표방하고 활동한 여성단체가 10여개이며 1907년 국채보상운동을 위한 여성단체가 30여개 있었다.⁷⁸⁾ 그리고 기독교 전파와 함께 여성교육기관이 1910년까지 40여개의 학교가 설립되어 여성교육이 점점 확산됨에 따라 여성들의 의식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또한 개화기의 대중매체를 대변할 수 있는 신문, 잡지를 통해서 여성들의 의식구조가 깨이기 시작하였는데 신문으로는 『매일신보』, 『대한일보』, 『만세

78) 김상향(1998), 「개화기 여성관의 변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4

보」, 「매일신문」, 「제국신문」, 「황성신문」들은 여성개화사상의 전파에 기여하였고⁷⁹⁾ 여성 교육의 중요성은 특히 「독립신문」에서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었다.⁸⁰⁾

우리나라 여성잡지의 효시인 1906년 유일선의 「가뎡잡지」 이후 1907년 신채호가 발행한 여성계몽잡지인 「가뎡잡지」는 단순히 가정계몽이자 교양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과학·사회 등 여러 부문에 걸쳐 개혁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개화기부터 창간되기 시작한 여성 잡지는 시대변화를 반영하는 매체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⁸¹⁾ 이 시기의 여성상을 잘 살필 수 있고 여성들의 의식변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구한말 갑오개혁 전후에 일어난 국내 여성들의 의식변화는 의상과 헤어스타일의 변화와 더불어 화장문화분야에서도 전반적인 변화가 왔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최초로 양장을 한 사람은 윤고려(尹高麗)로서 이때가 1899년이었는데⁸²⁾<그림 19>이는 윤치호가 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본인은 물론 부인 윤고려까지도 양장을 하게 한 것과 이숙경<그림 20>이 1890년 일본에서 양복을 착용했으며⁸³⁾ 또한 1895년의 단발령 이후 양장을 하고 기념사진을 찍은 고종황비(高宗皇妃)인 엄비(嚴妃)의 모습<그림 21>⁸⁴⁾도 볼 수 있다. 그녀는 외국 공관

79) 장미숙(2002), 「정월 나혜석의 개화기 여성계몽 교육이념 및 실천활동 분석」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0.

80) 한국여성연구회(1992), p.22~23.

81) 김선남(1997), 「매스미디어와 여성」, 범우사, p.192.

82) 김운하(1972), 「조선일보 제1568호」, 3월28일자.

83) 고주미(2000), 「패션의 수용 과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3.

84) 동아일보사(1978), 「寫眞으로 보는 韓國百年1(1876~)」, p.243.

高宗妃 純獻皇貴妃: 高宗의 繼妃이며 英親王의 生母이다. 1905년과 1906년에 養正義塾과 進明女學校를 설립했으며, 明新女學校(현 淑明女高) 설립 시에도 거액을 회사, 우리나라 敎育 發展에 큰공을 남겼다.

원 부인들을 통해 서양 문물에 눈을 뜨게 되었고, 그 당시 서양에서 유행하던 S형 실루엣인 깃스 걸 스타일의 드레스를 입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으로 기록되고 있다.⁸⁵⁾ 1900년에는 미국 유학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가 된 박에스터<그림 22>가 귀국하여 우아하고 검소한 양장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역시 미국 유학 후 우리나라 최초의 문학사가 된 하란사(河蘭史)<그림 23>는 베일과 모자를 착용한 클래식하고 품위 있는 양장차림으로 귀국하였다.⁸⁶⁾

이와 같이 아직은 양복이 생소한 이 시기에 외국의 지식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던 유학과 계층이나 전문직에 종사했던 신여성 계층에서 먼저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을미년의 단발령과 망건의 사용이 폐지됨에 따라 머리 문화에 일대 혁신을 가져왔으며 여성들의 머리모양도 변화를 겪는다.

화장문화도 예외가 아니어서, 개항 이후 우선 일본으로부터 흘러 들어온 화장, 화장품이라는 용어가 이때부터 생겨났고, 개화의 물결을 타고 일본, 중국 등의 화장품이 밀려들어오고, 신식화장법과 화장품이 재래 화장품과 화장법과 대치되거나 교체되는 국면을 맞았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궁중에서는 재래식 화장품에 의한 화장법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었던 것 같다. 당시 영국인 여류 여행가 버나드 비숍 여사의 「조선과 그 이웃나라」라는 기록에 의하면, 민비는 전통 치례를 하고 있었으며 진주분(眞珠粉)의 연독으로 얼굴이 항상 파리해 보였다는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⁸⁷⁾

85) 김춘득(2000), 『미용문화사』, 청구문화사, p.189.

86) 유수경(1990), 『한국여성양장변천사』, 일지사, p.133.

87) “황후는 사십이 넘어 보이고 늘씬한 몸매에 미인이라는 첫인상을 받았다. 머리는 흑색이고 화장은 眞珠粉을 썼기 때문에 창백해 보였다. 눈은 몹시 날카롭고 냉정했으며 모습 전체가 기민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보여주었다. 조선 여인으로서는 드물게 보이는

그러나 궁궐 밖은 상황이 달랐다. 개화의 바람속에 1907년 우리나라에 최초로 열렸던 경성박람회에는 화장품도 진열되었는데 당시에 진열된 화장품으로 국내 화장품은 수공업으로 제조되었던 연지나 동백기름, 분백분 이외에 그밖에 양품을 따라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제 화장품 몇 종이 전시되었는데 여성들 그 중에 여학생들의 관심이 더욱 컸다고 한다.

개화기의 여성들이 양품에 몰이 들어 상당히 세련되고 질은 화장을 했다는 사실이 영국인 버나드 비숍 여사가 쓴 『조선과 그 이웃나라』의 기록에 의해 나타나 있다.⁸⁸⁾

지금까지 화장품은 기생이나 화류계 여성들만이 쓰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이제는 개화의 바람을 타고 여학생은 물론이고, 여염집 가정의 주부들까지도 박화장(薄化粧)이 널리 유행하기에 이르러 화장품의 수요는 급격히 늘어났고, 값도 폭등하는 현상을 빚었다. 종래의 화장품은 원시적 수공업으로 만들어졌던 까닭에 품질도 나빴고 쓰기에도 불편했으나 1900년 초에 이르는 개화기에 중국과 일본을 통해서 밀수입된 외제 화장품은 품질도 좋고 쓰기에도 편리해 여인들로부터 크게 인기를 끌었고 그런 까닭에 부르는 것이 값일 만큼 가격도 상당히 비쌌다.

당시 밀수 화장품의 공급처는 주로 기생들이나 화류계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손님들로부터 화대로 돈을 받기보다는 화장품으로 받기를 원했으며 이렇

특징을 지녔다. 황후는 눈이 부실만큼 영롱한 감색의 긴 치마를 허리높이 입었고, 옷저고리의 섶은 목 근처에서 산호로 매어놓고 있었다.” 고 기록하고 있다.

88) 이에 따르면 “科學에 급제하고 錦衣還鄉하는 젊은 선비를 맞이하는 고을 사람들이 갖가지 화려한 옷을 입고 울긋불긋한 깃발을 흔들며 피리 불고 북을 치면서 환영했다. 아가씨들은 머리를 윤기나게 곱게 빗고 얼굴에는 질은 화장으로 매력을 물씬 풍겼다.” 고 기록하고 있다.

게 해서 손에 쥘 화장품은 방물장수나 매분구를 통해 비싼 값으로 일반 가정집에 팔려가기도 했다.⁸⁹⁾ 여하간에 신식화장품이 개화기의 신식 여성이나 소위 식자층의 가정주부들에게 호기심과 구매력을 크게 자극시켰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수입화장품의 인기로 인해 상·하급의 모든 여인들이 이같이 화장품의 수요를 급격히 늘리고 있음에 따라 값의 폭등을 가져오는 부작용을 일으켜 후일에 우리나라 화장품 박가분(朴家粉)의 생산을 촉진시키게 하는 자극제 구실을 하였다.

우리나라 화장품 발전사에 결정적 계기를 이루었다할 갑오개혁은 개화당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당시의 모든 정치·사회·경제·문화에 걸쳐 재래의 구습을 타파하고 급격히 근대화하려는 혁신운동으로써 각 부분에서 일어난 이러한 모든 개혁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시책들이었다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에 끼친 영향은 결정적이라 할 수 있다.

사실상 그 이전의 화장품 산업이라는 것은 보잘 것 없는 수공업 단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개화바람을 타고 비로소 관제에도 위생국(그후 식산국으로 이관되었음)이라는 것이 생겨나 화장품을 관장하는 정부기구가 탄생하게 되었고,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등 각국으로부터 외제 화장품이 들어옴에 따라 결국 국산 화장품도 정식으로 정부의 등록을 받아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910년 한일 합방으로 일제의 36년간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화장품에 대한 각종 행정도 총독부에서 관장하게 되었다.⁹⁰⁾

89) 김덕록(1998), 앞의 책, p.50.

90) 대한화장품공업협회(1986), 한국장업사, p.17.



<그림 19> 윤고려(1907년경)
(출처: 여성동아, 1968, 2, p.245.)



<그림 20> 이숙경(1900년경)
(출처: 여성동아, 1968, 2, p.245.)



<그림 21> 엄비의 양
장 착용 모습
(출처: 사진으로 보는
한국백년1, 1978, p.243)



<그림 22> 박에스터
(출처: 한국여성양장변천사
1990, p.132, 조선일보조사부
소장)



<그림 23> 하란사
(출처: 한국여성양장변천사, 1990, p.132.)

2) 1910년대(1910~1919) 화장문화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일제의 식민지 정책 하에서는 개화기의 근대화 노력은 자주독립이라는 민족운동의 성격을 띠고 전개되었다.

민족적 각성을 가져온 1910년 한일 합방 이후 3·1독립운동이 일어날 즈음까지 신식 차림과 신식화장문화는 대다수의 여성들에게 아직 친일파를 의미하여 곧 매국의 상징처럼 인식되어 증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양복화의 경향이 주춤해지고 한복착用に 대한 선호가 강해지고 전통화장을 고수, 신식화장문화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복식, 화장 등의 문제 이전에 독립운동과 구국사업 후원에 전력을 기울여 나라를 되찾자는 애국심의 발로에 연유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패션의 사치와 도덕의 붕괴가 개화는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신식화장의 유행은 가속화되지 못하였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1910년 한일합방이 이뤄진 후에는 중국 화장품보다 일제 화장품들이 국내 시장을 석권하기 시작하는데 일본으로부터 백분, 크림, 향수, 비누 등이 유입되었다.

또한 일본 화장품은 신문, 잡지 등에 일부 광고를 내기 시작하였는데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화장에 대한 인식을 달리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마련되어 새로운 화장문화가 성립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예로 1919년, 당시 유일한 일간지로서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인 『매일신보』라는 국문 신문에 선을 보인 광고로 일본 화장품 ‘호시’가 있다.<그림 24> 일본어와 그 번역을 섞어서 쓴 이 광고는 나뭇잎과 늘어뜨린 꽃송이, 그리고 호오카 백분(白粉)이라는 브랜드 이름의 독특한 로고체, 카피의 배열, 제품의 사진 등⁹¹⁾이 한 편의 한시(漢詩)와 같은 시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

아름다운 색염(색이 곱다, 예쁘다는 뜻)
 복옥한(향기 높은) 방향(꽃다운 향기)
 영한(이긴)듯한 풍부한 백분. 유아한 향기
 초하의 청청한 화장에 일신히(모두 새롭게)
 기고함을 증함. 호오카 백분
 연신이 호하고(분이 잘 퍼지고)
 수인의 기에든지 칠시 합하여(누구의 살결에도 잘 어울려서)
 의복의 금을 오치 않는(의복 옷깃에 묻어 더럽히지 않는)
 신발견의 연백분.



<그림 24> 호시 광고(출처: 매일신보 1919.5.27.)

91) 신인섭(2002), 『광고로 보는 한국화장의 문화사』, 김영사, p.16~17.

3) 1920년대(1919~1929) 화장문화

1920년대는 세계 제 1차 대전이 일어나 여성해방을 외치기 시작했으며 여성의 사회진출과 더불어 여성의 권익을 요구하던 시기였다.⁹²⁾ 따라서 1920년대에는 유교적인 구세대와 서구적인 신세대의 윤리적 충돌로 이미 수용되고 있는 서구문화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남녀동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여성들의 패션과 화장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이 무렵 서구의 패션은 플레퍼 스타일 혹은 보이쉬 스타일이었는데 이들의 유행을 따른 신여성(우리나라에서는 모던 걸(모단걸(毛斷傑), modern girl)이라고 불리던 여성)을 중심으로 확대되자, 이들의 단발, 화장, 구두, 장신구 등 사치스럽고 화려한 유행 추종 현상은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1920년대 화장은 신여성을 중심으로 개량한복과 양장의 착용의 확대에 걸맞게 눈썹은 가늘고 자연스럽게 둥근 아치형으로 그리고, 볼은 일본풍으로 뽀얗고 창백한 느낌의 하얀 피부로 표현했으며, 입술은 입술 윤곽이 선명한 빨간 입술이 유행했다.

1920년대는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일본 제국주의는 나라 잃은 민족의 울분을 문화라는 배출구로 달래려는 의도의 ‘문화정책’을 펴기 시작하여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창간되었고 여성지는 『여자시론』, 『신녀자』, 『부인』, 『신여성』, 『부녀지광』, 『활부녀』, 『부녀세계』, 『현대부인』, 『여성지우』가 창간되었다.⁹³⁾ 이 시기는 대중성을 가미한 상업지의 성격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92) 홍인자(2001), 「한국 화장문화의 연대기적 변천특성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1.

93) 최영경(1997), 「한국여성의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여성잡지 미용 기사를 중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0.

상업광고를 모집·기재하는 등 화장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미 1910년대 말부터 일본제가 판을 치던 화장품 광고 시장에 한국산 화장품 광고가 선을 보인 것은 1922년이였다. 이 한국 최초의 화장품은 박가분(朴家粉)이었다.

박가분 창시자는 지금의 두산그룹을 창설한 박두병의 선친인 박승직(朴承稷)이었다. 1916년에 상표 등록을 하고 1918년에 특허 승인 후 1920년경부터 박가분을 선보였다. 광고를 시작한 때는 1922년이었고, 1920~1930년대 초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1930년대 말부터 일제 화장품에 눌리고, 납의 유독성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자 1937년에 자진 폐업했으나 정식 관의 등록을 받아 내용물이나 포장을 개선하고 기업화하는 한편 상호와 상표를 등록했다는 사실, 또 국산 화장품으로는 처음으로 신문을 통해 광고했다는 점 그리고 다른 화장품의 제조를 유발시킨 점 등으로 오늘의 우리 화장품 공업발전의 초석을 이루었음에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박가분<그림 25~29>은 더러 한문을 쓰기도 했으나 거의 한글전용이었고, 상표와 주소만 한자였다. 사용자가 한글은 알지만 한문을 모르던 당시 한국 여성임을 고려한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림은 전혀 쓰지 않았다. 또한 반드시 테두리를 사용했고, 헤드라인은 카피 위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썼다. 문장은 알기 쉬운 구어체였고, 본문 카피를 세로로 썼다.⁹⁴⁾

부인 화장품 유일

부인 화장품 제일

조선부약품공진회 상패 수령한

94) 신인섭(2002), 앞의 책, p.14.

박가분을 사실 때는 등록상표를 반드시 보시고 사시옵소서.

살빛이 고와지고 죽은 깨(주근깨) 없어지는

박가분을 화장하실 때 잊지 마시옵.

부인 화장계(화장계)에 사랑받는 박가분

최고한 역사가 있는 박가분을 항상 바르시면 살빛이 고와집니다.

상패 받은 박가분을 사실 때는 등록 상표를 자세히 보소서.

향내만 취하지 마시고

얼룩이 안 지는 박가분을

최고한 역사가 있고 누차 상패받은 박가분을 항상 바르시면 살빛이

고와지고 모든 풍증과 땀띠와 잡티가 사라지고 윤택하여집니다.

귀부인 화장하실 때 박가분을 콩알만치 떼어 손바닥에 놓고 물을 조금

떨어뜨리고 개이면 백배 이상 불어나서 안면에 만족하게 바르게 됩니다.

1920년대 중반, 화장품을 어떻게 썼는지를 이 광고문안을 통해 알 수 있다. 박가분의 폭발적인 인기로 설화분, 앵분, 장가분 등의 유사상품이 생겨났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광고를 내기도 했다<그림 30>. 이외에도 미용백분과 서울분(1922년 2월 동아일보에 게재된 광고에는 ‘분쇠독 없는 고급원료와 고상순결한 향기로 만든’이라는 문안이 있다<그림 31>)이 제조·발매되고, 배달기름(머릿기름), 연부액(軟膚液, 미백로션), 유액(밀크로션), 연향유 밀기름 등도 잇따라 시판되었다. 이 화장품들은 제조 기술과 포장에 소위 신식 화장품을 모방한 것이어서 호평을 얻었는데 이 무렵의 화장품은 요즘처럼 기능이 세분되지 않고 있었다. 예를 들면 동아부인상회에서 제조 발매한 연부액<그림 32>은 살갗을 부드럽게 하

는 모범적 부료(膚料)요, 모범적 수(水)크림으로서 미안수로 손등약으로 바르라 하였고, 겨울 연부액은 세수한 후 얼굴에, 일한 뒤 손등에, 분바르기 전에, 얼굴 터진데, 기타 얼굴의 잡병에 바르도록 권하고 있으며, 조선부인약방의 금강액은, 여드름, 주근깨, 마른버짐, 어루턱이에 특효약이라 하였고, 유백금강액은 최량의 미백소로서 세안 후에 한 방울만 바르면 희고 고운 미인이 된다는 등 복합기능을 강조하였다. 신문에 광고한 이상의 화장품 외에도 가내수공업 규모로 생산된 상표없는 화장품들이 다수 판매되었다.

1920년대 초에 접어들면 일본 화장품이 국내 시장을 점유하고 유럽(주로 프랑스)방면에서도 화장품이 수입되었다. 일본의 화장품 광고도 그야말로 쏟아져 들어와 크림과 백분이 주된 제품이었고 아울러 향수와 미안수, 비누도 많이 광고하고 있었다.

영어인 클럽(Club)을 일본식 발음인 구라부로 바꾸어 쓴 화장품은 그 가운데서도 특히 많은 광고를 했는데, 그 중에서 백분과 크림 광고를 보면,<그림 36> 일본 옷차림의 여자그림이 있고, ‘신시대에 적응한 순진한 화장료’라는 카피에, 구라부 백분이라는 제품명을 두드러지게 내세웠다.⁹⁵⁾ 연(鉛), 즉 납 성분이 문제가 되던 때이므로 납이 들어 있지 않다는 뜻으로 순무연이란 말을 제품 이름 위에 썼을 것으로 보인다. 작게 쓴 바디 카피에는 ‘고아한 기품과 청초한 미는 현대 문화의 시요, 정화입니다’라고 하고 자매품인 구라부 미신(美身) 구리무는 아래로 처리했다.⁹⁶⁾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작은 한글로 토를 단 구라부 백분의 로고체이다. 구라부는 이미 1920년대 중반에는 현상광고까지 내기도 했으니 화장품 판매 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음을 짐작할 수 있다.

95) 신인섭(2002), 앞의 책, p.17.

96) 신인섭(2002), 위의 책,p.18.

또 다른 화장품 광고로서 오리지나루가 있는데 이 역시 영어 Original을 일본식으로 쓴 것이다.

향수는 지금까지도 값비싼 화장품으로서, 멋진 모자를 쓰고 장미꽃을 단 미인의 얼굴이 클로즈업되어 향수병을 열고 향내를 맡으며 쳐다보는 눈길이 무척 매력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모델의 얼굴과 차림, 레이아웃, 테두리 그리고 카피 모두가 1920년대라는 시대를 고려하면 뛰어난 솜씨의 광고이다.<그림 37>

향수계의 왕이라는 고품은 여러분으로부터 받고
애용하여 주심은
실로 세계의 명화(名花) 38종의 좋은 향기를 교묘히 조화하고...
또한 보통 향수에 비하여 30배의 농도가 있는 까닭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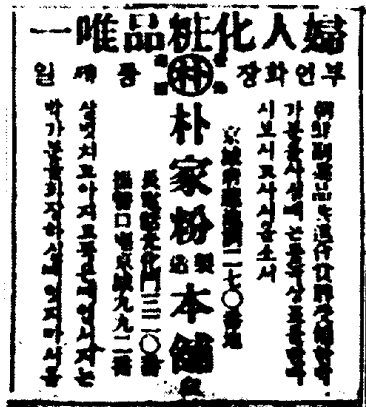
1920년대 후반, 미소노의 쯔보미라는 화장품 광고<그림 38>는 그 크기가 다양했고 독특하면서도 우아한 테두리를 구사한다. 아울러 같은 광고를 쓰지 않고 매번 바꾸어 쓰는 데서도 광고의 독창성이 드러나고 있다.

일본광고의 ‘한국화’는 이미 1920년대에 시작되는데, 우선 모델을 한복 차림으로 그린 것과 한글의 사용으로 나타난다. 백색 미안수 광고에 나오는 두 여자가운데 하나는 한복 차림이다. 그리고 카피는 모두 한글로 되어있다.<그림 40> 광고방법으로 따지자면 기사식에 가까우며 헤드라인은 ‘곧 아름다운 얼굴이 되는’이라 해서 광고 대상이 바라는, 이른바 제품의 혜택 즉 ‘아름다움’을 호소하고 나온다. 카피는 네 가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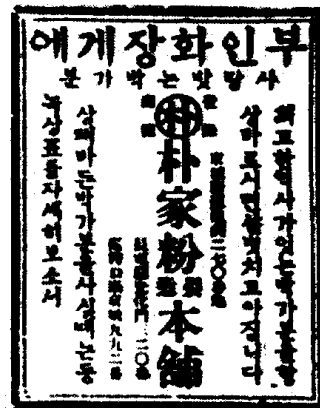
첫째는 아름다운 얼굴이 된다는 것이고, 둘째가 동경과 오사카에서 상중부인이 쓴다는 사실, 셋째는 연독이 없다는 것, 그리고 넷째가 일본 내무성에서도 무연성이 증명되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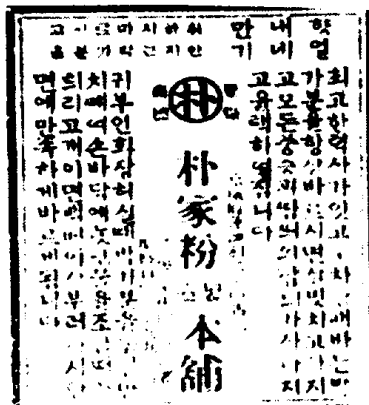
<그림 25> 朴家粉 광고
(출처: 동아일보 1922.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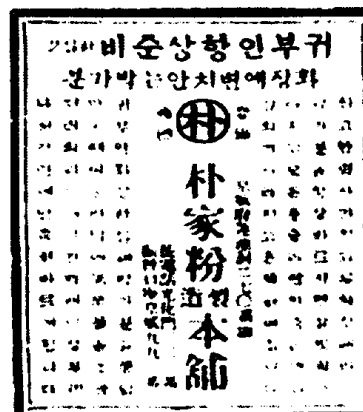
<그림 26> 朴家粉 광고
(출처: 동아일보 1924.1.12.)



<그림 27> 朴家粉 광고
(출처: 동아일보 1924.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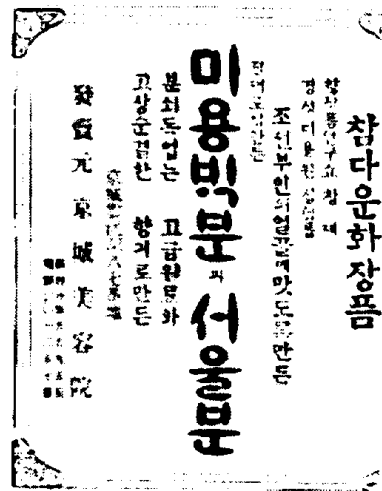
<그림 28> 朴家粉 광고
(출처: 동아일보 1925.9.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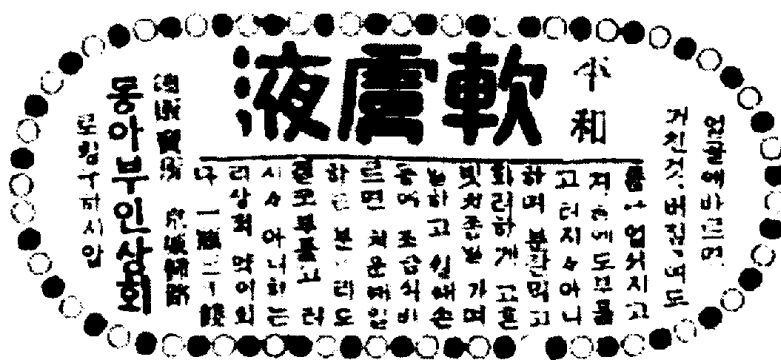
<그림 29> 朴家粉 광고
(출처: 동아일보 1926.11.7.)



<그림 30> 설화분 광고
(출처: 동아일보 1921.5.12.)



<그림 31> 미용백분과 서울분 광고
(출처: 동아일보 192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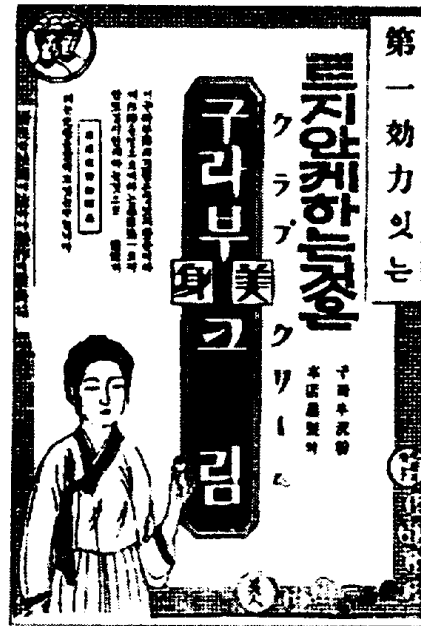
<그림 32> 연부액 광고
(출처: 동아일보 1922.1.7.)



<그림 33> 수백분 광고
(출처: 동아일보, 1927.5.26.)



<그림 34> 구라부 백분 광고
(출처: 동아일보 1923.1.27.)



<그림 35> 구라부 크림 광고
(출처: 동아일보 1923.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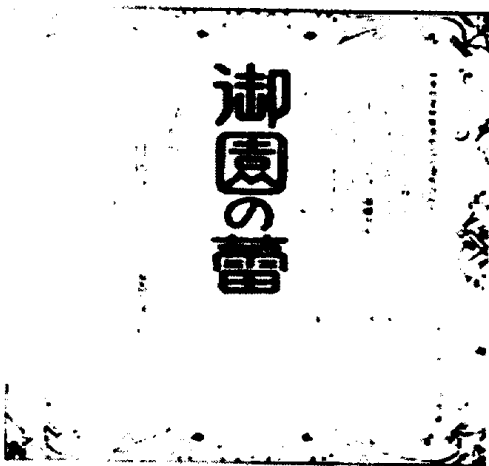


<그림 36> 구라부 백분, 크림 광고
(출처: 동아일보 1924.10.14./1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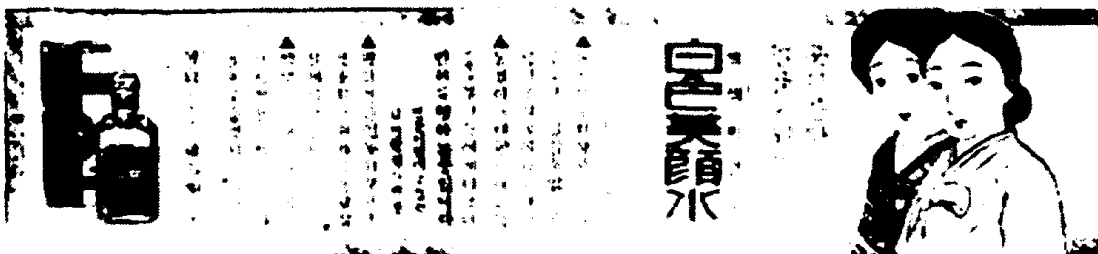
<그림 37> 오리지나루 광고
(출처: 동아일보 1924.10.14.)



<그림 38> 미소노 쯔보미 광고
(출처: 동아일보 1926.11.15.)



<그림 39> 미소노 백분
(출처: 동아일보 1926.11.17.)



<그림 40> 미소노 백색미안수 광고
(출처: 동아일보 1926.11.20.)

4) 1930년대(1930~1940) 화장문화

이 시기는 1930년대 초부터 말, 세계 제 2 차 대전 발발 전까지이다. 1930년대는 지배자와 피지배자간의 압제와 저항과 갈등의 연속이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한국인들은 일제에 대한 투쟁과 함께 저항과 계몽운동을 계속하였다. 특히 신여성에 대한 수용과 거부의 논란 속에서 1920년대 말 마침내 ‘무학(無學)은 여자의 치욕(恥辱)’⁹⁷⁾이라는 관념이 형성되고, 여성교육이 양적으로 팽창한 결과 신여성층이 증가하였다. 신여성층의 증가는 양장 착용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신식 화장의 증가를 의미하였으므로, 따라서 여성의 화장도 지식층, 젊은 여성들에게로 보다 확산 파급되었다.

1930년대의 화장은 기존의 스킨 위주에서 파우더, 립스틱, 아이샤도우, 펜슬 등보다 다양한 색조화장이 시작되어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던 1920년대와는 다르게 눈과 볼, 입술을 강조하는 유행 화장이 등장한다. 눈을 검정색으로 음영을 주고 회색 아이샤도우를 칠하고 인조 속눈썹을 붙이고 입술은 새빨갳게 그려 고대 이집트의 화장 분위기를 살린 것이 특징이다. 당시 무용가로 이름 높은 최승희⁹⁸⁾의 화장패턴과 헤어스타일을 보면 단발머리에 가늘게 휘어진 눈썹과 위, 아래 속눈썹 라인에 검게 강조된 아이라인, 음영이 짙은 아이샤도우, 붉게 강조된 직선적인 입술 화장한 모습<그림 41>에서 당시의 유행화장을 최대한 살린 것을 볼 수 있고 1930년대 후반 <여성>잡지의 표지<그림 43>에서 당시의 서구화된 화장기법과 패션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별건곤>1930년 12월호 삽화<그림 44>를

97) 「매일신보」, 1928.8.11

98) 최승희(崔承喜)(1911~): 북한의 무용가.

주요저서 「조선 민족무용 기본」, 「조선 아동무용극 기본」

살펴보면 도회의 신세대부부의 모습에서 화장하는 여성의 모습은 변화된 여성의 위치와 상당히 광범위하게 화장을 즐겼음을 알 수가 있다. 당시를 반영한 영화 『사의 찬미』⁹⁹⁾에서의 윤심덕(1897~1926)¹⁰⁰⁾의 모습은 단정한 양장에 검은 눈썹, 빨간 립스틱정도로 표현되어 있는데 당시의 유행화장경향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그림 42>.

1930년에 들어서 한국인이 설립한 화장품 회사들이 여럿 등장하였는데 문영수(태양리화학)의 피카몬드, 김동엽(동방화학)의 에레나화장품, 임성환(동보화학)의 동보구리무 등이 가장 크고 잘 알려진 화장품들이었다.¹⁰¹⁾

박가분 성공에 자극받아 1930년대 말에는 국내에도 몇몇 화장품 회사가 설립되었다. 문영수의 태양리화학(太陽理化學) 피카몬드 향수, 김동엽의 동방화학 에레나 화장품, 임성환의 동보화학 동보 구리무(크림의 일본식 발음)등이었다. 그러나 아직 사업은 대단치 않았는지 1930년대의 이들 회사 제품의 광고는 발견된 것이 없다. 이들은 1942년에 조선화장품 제조업조합이 설립되어 화장품 원료를 공급하게 될 때 모두 이 조합에 참여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조합 대표는 일본인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해방 후 화장품 메이커의 단체가 설립될 때 선도적 역할을 했다.

1920년대에 선을 보이기 시작한 일본 화장품 광고는 날이 갈수록 늘어갔다. 또한 화장품은 향수, 샴푸, 코롱, 남성용 포마드, 연지, 립스틱 등으로 더욱 다양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화장품회사도 늘어나서 지금 일본 최대의 화장품회사인 시

99) 제작 극동 스크린/ 감독 김호선/ 각본 임유순/ 촬영 이성훈/ 조명 임춘행, 캐스트 장미희, 임성민, 이경영

100) 윤심덕(1897~1926):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관비 유학생,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효시,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 성악가,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가수.

101) 전완길 외(1995), 앞의 책, p.61.

세이도(資生堂), 세제화장품회사인 카오(花王)도 많은 광고를 하게 되었다.

1926년대 중반부터 동경과 오사카에서 들어온, 일본 최대의 광고회사인 덴즈가 발행한 신문총람을 통해 1926년과 1935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실린 일제 화장품 광고의 양을 보면 많은 화장품 광고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1930년대는 물론 1940년까지도 화장품 광고는 성황이었고 화장품 판매 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1> 일본제 화장품 광고량

연도	매체	총광고량 (행)	화장품 광고량 (행, %)
1926	조선일보	781,570	127,117(16.3%)
	동아일보	726,860	115,036(15.8%)
1935	조선일보	2,238,577	295,301(13.2%)
	동아일보	2,042,042	303,117(13.3%)
	매일신보	1,455,328	193,717(13.3%)

(출처: 일본 전보통신사 신문총람, 1927 및 1936)

이 시기의 광고는 헤드라인이나 카피뿐 아니라 광고의 크기, 디자인, 레이아웃, 일러스트레이션 등 모든 면에서 1920년대에 비해 훨씬 세련되어 졌다. 사진술의 발달로 모델의 얼굴 사진이 등장했다. 특히 ‘이 한 병으로 빛나는 살결’이라는 헤드라인의 헤치마 코롱 광고는 김소영이라는 여성의 얼굴 컷을 등장시켜 소비자에게 한층 다가왔다. 모델들의 모습도 더욱 세련되고 발랄해졌다.<그림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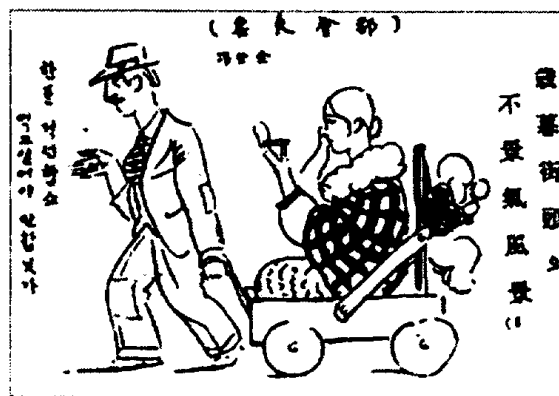
<그림 41> 최승희
(출처: 한국 생활문화 100년)



<그림 43> 1930년대 후반
『여성』 잡지의 표지
(출처: 서울에 댄스홀을 허하라)



<그림 42> 윤심덕
(출처: 영화 『사의 찬미』 중에서)



<그림 44> 『별건곤』 1930년 12월호 삽화
(출처: 서울에 댄스홀을 허하라)



<그림 45> 헤치마코롱(출처: 매일신보 1940.1.9)



<그림 46> 클로버 립스틱(출처: 매일신보 1940.1.15)



<그림 47> 금학향유
(출처: 매일신보 1940.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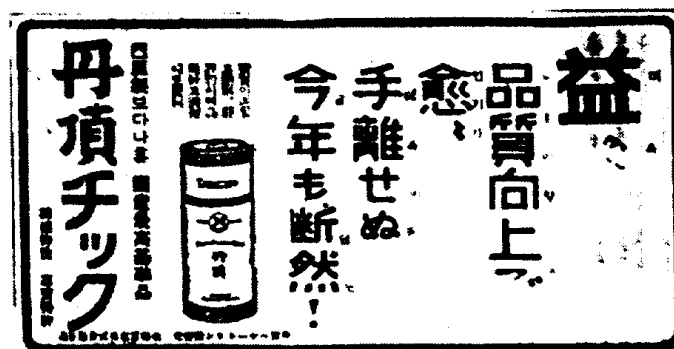
<그림 48> 카오 샴푸
(출처: 매일신보 1940.2.13)



<그림 49> 시세이도 광고
(출처: 매일신보 1940.2.14.)



<그림 50> 헤치마 코롱 광고
(출처: 매일신보 1940.2.20.)



<그림 51> 단조치크 광고
(출처: 매일신보 1940.2.29.)

5) 1940년대(1941~1945) 화장문화

이 시기는 1941년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부터 일제에서 광복되는 1945년까지이다. 1930년대 후반 대동아 전쟁과 1941년 태평양전쟁 발발로 인한 물자의 부족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경기가 후퇴되어 통제 경제체제로 변하였다. 1939년 국민징용이 실시되고 ‘총동원 물자사용 수용령’이 공포되어 전시체제가 되었다.¹⁰²⁾

1940년대에 들어서자 전쟁의 격동 속에서 일제의 억압은 극에 달해 창씨개명(創氏改名), 황국신민화 등을 강요하였고 이미 1940년 8월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강제 폐간되었고, 국문 일간지는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만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다.

1930년대의 화려했던 양장·헤어스타일·화장문화의 르네상스는 2차대전의 발발로 일제 말의 어두운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며 쇠퇴하였다. 남자들은 뺄뺄 민머리에 전투복과 전투모, 여자들은 전투복으로 유행과는 무관한 통바지 비슷한 몸매 차림이 강요되었다. 이 시기는 일본 군국주의 후반의 강요된 획일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성의 표현이 억제되어 화장문화가 또한 위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광고할 물건도 급격히 줄었다. 그리고 모든 광고에는 세금이 부과되었고 화장품 광고는 대부분 자취를 감추었다. 일본 패전 전년도인 1944년 가을까지는 그래도 3단 10cm쯤 크기의 화장품 광고가 있었으나, 패전의 해인 1945년에는 크기가 2단으로 줄었다. 겨우 남아서 작은 광고나마 할 수 있었던 화장품이라고는 유끼 구리무와 구라부 구리무 정도였다. 20여 년 전부터 광고를 해 오던 구라부는 크림과 치약 광고만을 하고 있었다.¹⁰³⁾

102) 박경자(1989), 「일제침략시대의 복식연구」 「한국복식논고」, 서울: 신구문화사, p.252

103) 신인섭(2002), 앞의 책, p.22.

광고의 크기만 달라진 게 아니라 광고의 내용도 변했다. 화장품 광고에도 전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

언제나 명랑하고 씩씩하게 일합시다.

결전 하 근로 여성의 건강미에는 반드시 영양 크림으로

멸사봉공. 승리할 때까지는 각 직장에서 일체 멸사봉공하여
복구(원수를 갚음) 증산에 힘쓰시다.

정신감투(挺身敢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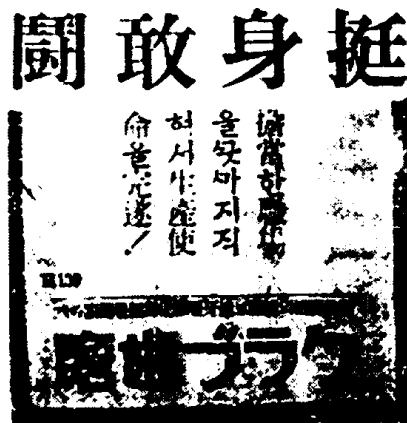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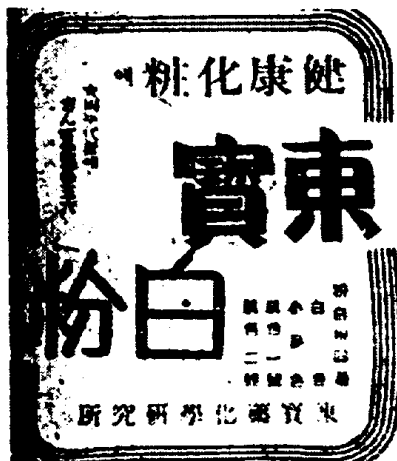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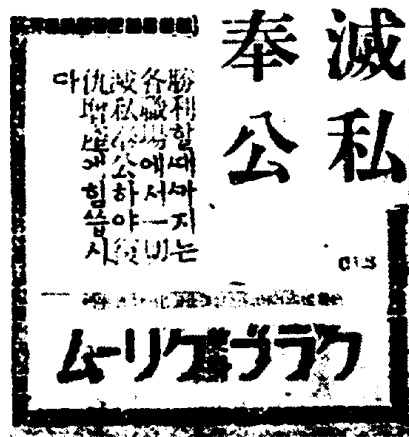
담당한 직장을 끝까지 지켜서 생산 사명을 완수!

해방 전 매일신보에 실린 마지막 화장품 광고는 구라부 크림으로 1945년 6월 28일이었다. 특이한 일은 앞에서도 언급한 한국인이 경영하는 화장품회사인 동보이화학연구소 광고인데, 일본 패망의 해인 1945년 3월 28일자 매일신보에 작은 광고를 게재한 것이다. ‘건강 화장에 동보 백분’ 이라는 가 있는데, 시대상을 반영한 ‘건강화장’ 이라는 말을 썼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1930년대에는 한국 사람들이 화장품회사를 설립했는데, 그 가운데는 피카몬드 향수를 생산한 문영수의 태양리화학(太陽理化學), 김동엽이 설립한 에레나 화장품의 동방화학, 임성환의 동보(東寶) 화학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이듬해인 1942년 봄, 일제는 조선화장품 제조업조합을 결성케 하여 이 조합 회원들에게만 원료를 배급했다. 아울러 제품 규격 심사위원회를 두어 제품을 심사했으며 고율의 세금을 부과했다. 일제 말기

에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화장품업자는 김동엽과 임성환이었다. 김동엽의 동방 화학은 에레나란 상표로 바니싱크림, 콜드크림 유액, 포마드 등을 생산, 판매했다. 이들은 해방후 조선화장품협회를 결성하고 김동엽을 초대회장으로 선출했다. 이 협회의 산파역 가운데 한 사람인 임성환은 1948년 1월에 순수 제조업자들로 구성된 조선화장품공업협회의이사장 직을 맡았다.



<그림 52> 동보백분 광고(출처: 매일신보 1945.3.28.)

2. 20세기 전반기 한국 화장문화의 특징

1) ‘화장(化粧)’ 용어의 유입과 화장개념의 변화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화장(化粧)’이라는 낱말은 우리의 고유 어휘가 아니다. 또한 의미 역시 우리의 고유 개념과 다르다.

개항 이후 정치·문화·경제 등 많은 분야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미용분야도 예외는 아니었다. 맨 먼저 미용용어부터 새롭게 변화하였는데, ‘화장(化粧)’·‘화장품(化粧品)’이라는 어휘가 일본으로부터 유입되었다. 일본인들의 조어(造語)인 화장은 가화(假化), 가식(假飾), 즉 거짓 꾸밈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화장이라는 낱말이 고려시대 이래 사용된 적이 있지만 화장(化粧)이 아닌 화장(化裝)이었다. 그런데 이 어휘는 한정된 의미를 지닌 것이었으므로 널리 사용되지 않았다.

『우리말 사전』¹⁰⁴⁾, 『표준국어 사전』¹⁰⁵⁾, 『조선말 큰사전』¹⁰⁶⁾ 등에는 화장(化粧)을 단장(丹粧)에서 찾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표준국어 사전』과 『조선말 큰사전』에는 화장(化粧)을 분·연지 따위를 발라서 얼굴을 곱게 하며 머리털이나 옷맵시를 매만져 곱게 꾸미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우리말 사전』에는 화장(化粧)을 분·연지를 발라 얼굴을 곱게 매만지는 것이라고 하고 있어 그 의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가하면 『새국어 대사전』¹⁰⁷⁾에는 단장(丹粧)을 화장(化粧)에서 찾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의 화장은 분·연지 따위로 얼굴, 머

104) 車泰和(1950), 『우리말 사전』, 三文社.

105) 신기철(1958), 『표준국어 사전』, 을유문화사.

106) 조선어 학회(1949), 『조선말 큰사전(2)』, 을유문화사.

107) 국어문화회(1969), 『새국어 대사전』, 송강출판사.

리털을 곱게 매만지는 의미로 해석되어진다.

따라서 이것으로 화장이라는 말이 들어오기 전에는 단장(丹粧)이 우리 고유의 화장개념이었으나 개화기 이후에는 분단장(粉丹粧)의 개념만이 ‘화장(化粧)’으로 대치되어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화장(化粧)’ · ‘화장품(化粧品)’은 우리의 고유 어휘가 아닌 개화기 이후에 일본에서 유입된 어휘로서, 개화기 이전에 화장(化粧)에 해당하는 고유 어휘로는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지분(脂粉)과 분대(粉黛)라는 말이 쓰였는데 각각 연지와 백분, 백분과 눈썹먹(黛)의 약어(略語)이지만 예전에는 연지, 백분, 눈썹먹이 화장품의 대명사이다시피 하였으므로 화장품을 총칭하는 어휘로 사용되었으며, 화장의 의미를 대신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와 같은 말 외에도 치레하는 정도에 따라서 각기 다른 낱말을 사용하였다.

담장(淡粧) : 피부를 희고 깨끗하게 가다듬는 정도의 담박한 멋내기.

옷을 단정하게 차려 입고, 단아한 빗질에, 요즘 기초화 장만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사극(史劇)에서 가끔 안방마님의 우아한 담장을 보여준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남녀가 모두 담장하였다.

농장(濃粧) : 담장보다 짙은 상태의 치레, 색조화장에 비유된다.¹⁰⁸⁾

염장(艷粧) : 농장과 유사하되 색태(色態)를 띠고 있음.

응장(凝粧) : 농장과 유사하나 더욱 또렷하게 꾸민 상태로서 신부화장이 이에 해당한다. 담장, 염장, 농장이 평상시의 치레임에 반하여 응장은 혼례 등 의례(儀禮)차림이다. 신부의 얼굴치장 이외에 장신구와 옷치장이 화려한 꾸밈일 때에는 응장성식(凝粧盛飾)이라고 표현한다.

108) 조효순(1988), 앞의 책, p.374.

야용(冶容) : 억지로 아름답게 꾸민다는 분장의 의미를 지닌다. 본래의 아름다움을 바탕으로 더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아니라 박색을 미인으로 치장한다든지 노인을 젊은이처럼 몰라보게 치장하는 경우이며, 화장(化粧)을 우리 고유어휘에 굳이 견준다면 야용이 이에 해당한다.¹⁰⁹⁾

이 밖에, 미용(美容)은 치장 정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얼굴치장 행위를 가리키는 낱말이며, 단장(端粧)은 얼굴 꾸밈과 아울러 옷차림과 장신구의 치레를 담박하게 하였을 때에 적절한 어휘이고, 성장(盛裝)은 이와 반대로 야하거나 화려한 경우를 가리킨다. 또 장식(粧飾)은 피부손질과 얼굴 꾸밈, 옷차림, 각종 장신구 치레를 골고루 갖추는 행위를 일컫는다.¹¹⁰⁾ 또한 참고로 『대한화사전(大韓和事典)』에 화장의 다양한 종류가 나타난다.¹¹¹⁾ 즉 옛 한국인들은 가꾸는 행위와 가꾸는 정도에 따라서 이처럼 표현하는 어휘가 다양하였는데 이것은 한국인의 미의식이 세분화되고 세련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때와 장소, 목적에 따라 옷, 장신구, 화장이 달랐는데 화장이라는 낱말이 유입되어 상용어가 됨으로써 차츰 야용류의 멋내기가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개화 이전까지 이들 화장품 외에 화장에 필요한 도구인 경대, 빗, 빗치개, 거울, 족집게, 머릿보 등 화장도구 일체를 총칭하여 장렴(粧奩)이라 불렀다. 그런데 화장품은 아름다움을 가꾸는 코스메틱스(Cosmetics)와 청정, 피부보호용

109) 李瀾, 『星湖僊說』, 卷二十, 經史門, 治家條.

“嫫母(못난여자의 대명사)를 西施(예쁜여자의 대명사)로 만들 수 있고, 못난모습을 바꿔 잘생긴 것처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冶라는 것으로 일컫게 되었다.”

110) 全完吉 외(1995), 앞의 책, p.52.

111) 諸 轍次 著(1984), 大漢和事典, 東京, 大修館書店, 昭和 59 燐粹

粧飾-(晉書, 石季龍載記) 淡粧-(梅妃傳), (楊萬里, 梅花詩), (吳景奎, 白海棠詩)

濃粧-(張設, 排花園詩), (白居易, 新樂府, 監商婦), (耶律楚朴, 腦梅詩)

토일레트리스(toiletries)로 구분해야 마땅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두 가지를 모두 화장품이라고 표현한다. 그 원인은 화장품이란 낱말이 개항 이후에 소개된 외래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림에 포함되는 화장품은 코스메틱스(Cosmetics)에 해당하는 머릿기름, 백분, 연지, 미묵, 미안수 등이었고, 토일레트리스(toiletries)에 해당하는 피부의 때를 씻는 조두(澡豆) 나 향수, 향료 따위는 장림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 전통화장문화와 신식화장문화의 이원화

개항과 한일합방에 따라 서로 다양한 문물이 유입됨과 아울러 생활관습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여성의 매무새를 보면, 쪽머리와 땡기머리 대신에 파마가 유행하고, 치마는 짧아지고 소매길어도 짧아졌다. 또 뽀족구두(하이힐)에 양산을 받쳐든 모습이 예사로워졌다. 신식 화장품과 함께 신식 화장법도 도입되었다. 일반적으로 분이 뽀얗게 발라지고 입술연지의 새빨간 색깔이 진해지고 향수의 향내와 비누의 향내가 강렬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신식 화장법과 신식 차림은 적잖은 반발에 직면하였고 대중화에 한계를 노출시켰다.

그 원인은 이러한 신패션이 기생과 창녀 등 하류 여성들에게 먼저 유행하였기 때문이다. 어느 사회에서나 새로운 패션이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들에게 먼저 유행하는데, 당시 우리 나라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전무한 형편이였고 사회활동은 기생과 창녀 등 직업여성들에게 한정되어 있었다. 유행은 상류사회에서 하류사회로 파급되지 하류사회에서 상류사회로 파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가문과 개인의 명예, 그리고 전통을 중시했던 당시 사람들로서는 그들이 경멸했던 기생, 창녀 등 하류 직업여성들의 멋내기를 수용할 리가 없다. 이는 향수, 향료의 사용

관습에도 일찍이 반영된바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 사람들은 고조선 사회부터 향을 실생활에 사용하기 시작하여 손님을 맞을 때와 차를 한 잔 마실 때에도 반드시 향을 사르곤 했었는데 고려·조선시대에 기생들이 향을 애용하고 복용하기도 하는 등 기생, 궁녀, 창녀가 짙은 향내를 발산하자 일반인들이 이들과 차별화하기 위하여 향을 애용하되 느낄 듯 말 듯 얇은 향 선택으로 선회한 예와 같은 논리이다. 그러므로 직업여성들의 붉은 머리, 겨드랑이를 드러내고 몸에 밀착되는 옷, 정강이를 노출시킨 치마와 아울러 새빨간 입술, 뽀얀 뺨은 야용류 화장과 야한 차림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두 번째는 직업여성들의 치레, 즉 새로운 패션이 신여성들에 의하여 유행된 것이 문제였다. 한일합방 이후 신학문을 배워야 하고, 여성도 깨우쳐야 한다는 사회풍조가 진작됨에 따라 여성들이 일본에 건너가 신학문을 연마하였는데 이들 신여성들은 대부분 도덕적인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들은 자유연애 주창자였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의 뜻에 따라 배우자를 선택했던 것과 달리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배우자를 선택해야 한다는 자유연애 — 그러나 자유연애는 여기에서 한 걸음 진보하여, 좋으면 만나고 싫으면 헤어진다는 혼인과 이혼마저 자유라는 논리로 비약하였다. 시인, 화가, 음악가 등 소위 선구적인 신여성들은 자유연애론은 도덕적으로 완벽함을 자랑했던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충격적이었다. 김동인의 소설 『김연실전』이 대표적인 예인데, 신여성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부류로 인식되었다. 특히 당시에는 부모에 의사에 순종하여 조혼한 청년들이 적지 않았는데 이들이 신여성들과 놀아남으로써 신여성은 ‘화냥년’이라는 비난마저 듣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신파션마저 비난의 대상이 되었는데 더욱이 이들의 신파션이 직업여성들의 차림과 유사하여 비난을 증폭시켰고, 여염에서는 보수회귀성향(전

통화장 고수)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신식 화장품을 사용하되 전통화장을 하였지, 신화장법을 수용하지 않았다.

1907년 우리 나라 최초로 열린 경성박람회에 국내에서 수공업 규모로 제조된 연지, 동백기름, 분백분 의외에 외제 화장품 몇 종이 전시되었는데 여성들이 깊은 관심을 나타내었고, 그 중에 여학생들의 관심이 더욱 커졌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신학문을 배우는 그들로선 멋내기에 관심이 컸을 테니까. 그런데 당시 신문은 여학생들이 공부하는 하지 않고 화려한 옷치장에 몰두하는 등 모양만 낸다고 비난하였다. 신여성들의 옷차림이 화려하며 화장이 짙다고 비난한 논조와 흡사하다. 신여성에 대한 경계심리가 여학생들에게도 작용한 것인데 당시의 여학생은 상류사회 혹은 어염 규수들이라기보다 기생, 소실, 하녀, 등 하류사회 출신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이화학당의 초기 학생들이 대부분 그러함) 이러한 비난은 꽤 당위성을 지녔으며, 당시의 비난을 근거로 현재도 여학생의 화장을 금지하는 세계적인 기현상을 낳았다.

모던 - ㄴ 식이면 모양도 색채도 상관업시 덩허눅고 이상하기만하면 주서바르고 주서입는 것이 요사이 신여자 新女子이다. 밀가루 반죽에다 채색칠 한것 갓치 그게 무슨 모양인지 어울이지도 안코 맞지도 안는 것을 모던 - ㄴ 이라고 휘두르고 단이는 꼴을 볼 수가 없다.¹¹²⁾

세 번째 장해요인은 일본의 대한제국 합병에 대한 반발심리였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원인이 개화가 늦은 탓이기 때문에 근대화를 가속시켜야한다는 계층이 없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은 개화품은 곧 일본품이라고 여겼다. 뿐만 아니라

112) 이승만(1929.1.), 「다시 중절식(中折式)으로」, 『별건곤』, pp.101~102.

패션의 사치와 도덕의 붕괴가 개화는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이 때문에 신식화장의 유행이 가속되지 못했다.

네 번째, 대중매체의 영향을 들 수 있다. 1920~1930년대의 신문을 보면 요즘보다 더 많은 지면을 패션에 할애하였다. 즉 모자와 옷과 관련된 기사를 비롯하여 화장품의 선택법, 보관법, 자가 제조법, 그리고 흰 피부 가꾸기, 여드름 치료법, 젊음을 항상 유지하는 법, 여 학교를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의 화장법, 중년부인의 화장법 등 거의 매일 멋내기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데, 이 기사들을 분석해보면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옅은 화장, 점잖은 화장, 박화장 등 표현은 다르나 내용은 같은데 희고 깨끗한 피부를 바탕으로 분을 약간 바른 화장법이다. 여학교를 갓 나온 여성은 화장의 경험이 없어서, 박화장이 적당하고 코가 낮은 여인에게도 박화장이 어울리고, 사진 찍을 때도 박화장이 자연스러우며, 사오십된 여인이 꽃다운 처녀의 화장을 그대로 하면 그야말로 화장이 아니라 큰 웃음거리가 되고 만다는 등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박(薄)화장이란 전통적인 담장(淡粧)과 유사한바, 맑고 희고 깨끗한 피부 위에 안한 듯 분바른 형태로서 옅고 점잖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색조화장보다는 기초화장에 가까우며 코가 낮거나 입술이 작거나 광대뼈가 볼거진 경우, 화장품으로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모습 그대로 가꾼다. 그래서 평면적인 화장이 된다.

IV. 결 론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된 화장은 그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요인들과 역사적 관계 속에서 생성되고 변화해 왔다. 즉 화장은 그 시대적 문화 이데올로기와 미의식을 반영하며, 역으로 화장문화의 역사적 추적은 인류 역사의 문화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항에 따른 문호개방을 시작으로 밀려오는 외래문화의 영향으로 전개된, 한국의 전통사회가 근대 사회로 변화하게 되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서 변화, 발전된 화장문화에 대한 연구는 바로 우리나라의 사회의식, 민족의식, 미의식의 표출이며 시대적 문화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본 논문은 20세기 전반기 한국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화장문화의 변화가 사회·문화적 요인들의 반영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20세기 이전 한국 화장문화를 살펴보고, 20세기 전반기의 시대적 배경을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들로 크게 분류, 화장품 산업발달과 관련시켜 화장문화의 배경을 분석하고 이러한 상황이 화장문화에 끼친 구체적인 영향을 통해 그 변천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화장문화라 함은, 화장행위와 화장품 등을 포함하여 그에 관련된 지식과 정서, 사회 문화적 현상까지를 말한다.

화장이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된 이래 우리 민족이 일찍부터 매우 높은 미의식을 가지고 남녀 모두 아름다움을 가꾸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는 사실은 단군신화에서부터도 나타나 화장문화가 있었다는 흔적을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아름다운 육체에 아름다운 정신이 깃든다는 영육일치사상과 하얗고 티없

는 피부를 선호하는 백색피부호상사상이 깊이 뿌리 박혀 얼굴을 단정히 가꾸고 몸을 청결히 유지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이것을 단장(丹粧)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고유의 화장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꾸밈의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어휘로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개화기 이후부터 일본으로부터 화장이라는 낱말이 유입되어 상용어가 됨으로써 차츰 얼굴화장만을 가리키는 야용(冶容)류의 멋내기가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개항을 맞은 조선사회가 갑오개혁과 더불어 서양과의 문화적 접촉이 시작된 이래 수천 년을 지속하여 온 한국 화장문화는 변화의 양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특히 20세기 전반기 한국 화장문화는 무엇보다도 화장 행위의 주체인 여성에 관련된 교육의 확대와 그에 따른 여성의 사회적 진출, 시대적 가치인식의 변화, 경제·산업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세기 전반기는 전통적으로 화장이 기생들의 전유물처럼 취급되어져 온 기존의 인식이 차츰 변하게 되는 시기로 점차 신여성, 가정주부들에게도 확대되었다.

20세기 전반기에 이르러 한국 화장품 산업은 커다란 변화를 겪는다. 20세기 전까지의 자가자급경제체제와 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점, 화장품의 제조방법 등의 한계로 개항 이후 재래 화장품 산업이 쇠퇴되나 화장품 발전사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갑오개혁 이후 오늘의 우리 화장품 공업발전의 초석을 이룬 박가분을 비롯한 다른 국산화장품들이 제조되고, 1930년~1940년대에 들어서 설립된 한국인 화장품회사의 존재는 화장품의 산업화와 발전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허가절차나 시설기준, 품질검사 없이 가내수공업 규모로 화장품을 제조하였다. 당시의 화장품 판매는 점포판매가 늘고, 분매 방식의 판매가 생겨났고, 좌상, 방물장수와 매분구 등을 통해 유통되었다. 또한 화장품광고가 신문·잡지 지면을

장식하면서 화장문화가 일반인에게까지 보다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쳐 화장문화를 촉진시키는 매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신식화장품과 신식화장법이 도입되면서 화장문화는 신식화장과 전통화장의 이원화로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한다. 신식화장법이 유행하면서 분이 뽕얇게 발라지고 입술연지색이 짙어지고 향수와 비누의 향내가 강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신식화장법의 유행은 가속되지 않고 대중화에 한계에 직면했는데 그 원인은 주로 신여성과 직업여성들인 기생과 창녀, 영화배우 등에 의해서 먼저 유행되었기 때문이다. 일부 신여성들의 자유연애 예찬과 이에 대한 비난으로, 신식화장을 한 여성들은 바람둥이 또는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으로 지칭되기도 했다. 여염집 여성들은 그들과 구분되기 위해서 더욱 화장을 기피함으로써, 종래 기생 등의 화장과 여염집 여성의 화장구분이 더욱 심화된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한일합방 이후 민족적 각성을 가져와 개화풍이 곧 일본풍이라고 여겨 일본에 대한 반발이 신식화장의 유행을 저해시켰고 또한 대중매체의 기사들을 분석해 보면 박화장, 옅은 화장, 점잖은 화장을 연일 강조하고 모던걸이라고 불리던 신여성들의 유행 추종 현상을 대부분 좋지 않게 보고 사회의 지탄의 대상으로 삼았기에 신식화장이 대중화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까지 단장의 의미를 지녔던 화장은 장식의 의미로 바뀌면서 얼굴, 피부손질, 옷차림, 장신구, 머리모양 등 토탈 패션으로서의 화장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20세기 전반기의 정치·사회·사상·종교·교육·문화·대중매체 등의 제 시대적 배경들은 화장문화를 침체케 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도 되었지만 새로운 화장문화의 수용, 보급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자는 한국의 20세기 전반기를 시대적 연구 범위로 삼았지만, 분석대상

의 사진자료 및 출판물의 자료미비로 연구에 제한점이 있었다. 그나마 다행히도 이 시기의 대중매체를 대변할 수 있는 신문과 잡지 특히 화장품 광고를 비롯한 사회 문화적 연구로 그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앞으로 좀더 많은 자료와 체계화된 논리의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또한 기존 연구들의 범위가 동·서양 화장문화의 역사적 연구로 시간적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됨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부분적인 연구들이 문화사, 사회사 등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역사적 시대배경과의 관계연구가 미흡하여 상호 관련성을 이해하는데는 제한점이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광범위한 시간적 범위의 설정이 아닌 보다 구체적으로 부분적인 연구들이 계속적으로 요청되며 그러한 결과가 다시 종합되는 방식으로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I. 국 내 문 헌

1. 단 행 본

現 代

강만길(1987), 『韓國近代史』, 서울: 창작과 비평사.

강성원(1998), 『그림으로 보는 한국여성미학의 사회사』, 서울: 사계절.

국립민속박물관(1994), 『한국의 얼굴』, 서울: 신유.

국어국문학회(1969), 새국어대사전, 서울: 송강출판사.

김덕록(1998), 『화장과 화장품』, 서울: 도서출판 답게.

김명자(1985), 『화장품의 세계』, 서울: 정음사.

김용숙(1989), 『한국 女俗史』, 서울: 민음사.

金元龍(1980), 『韓國美術全集4』, 서울: 同和出版公社.

金元龍(1994), 『한국미술문화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예경

김춘득(2000), 『미용문화사』, 서울: 청구문화사.

대한화장품공업협회(1996), 『한국장업50년사』, 서울: 약업신문(주)

대한화장품공업협회(1986), 『한국장업사』, 서울: 약업신문(주)

도미니크 파케(1998), 『화장술의 역사』, 서울: 시공디스커버리 총서.

동아일보사(1978), 『寫眞으로 보는 韓國百年』, 서울: 동아일보사.

두산동아출판사(2002), 『두산세계대백과사전/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서울: 두산동아출판사

문명대(1994), 『고려불화』, 서울: 열화당.
 민병하(1979), 『근대 교육제도의 실시』, 서울: 서울 600년사.
 민중예술위원회(1985), 『삶과 멋』, 서울: 공동체.
 백성록(1971), 『고종32년』, 서울: 서울대학교 고전총서, 경인본.
 백종기(1981), 『한국 근대사 연구』, 서울: 박영사.
 신기철(1958), 『표준국어사전』, 서울: 을유문화사.
 신용하(1980), 『한국 근대사와 사회변동』, 서울: 문학과 지성.
 신용하(1987), 『韓國 近代社會 思想史 研究』, 서울: 일지사.
 신인섭(2002), 『광고로 보는 한국 화장의 문화사』, 서울: 김영사.
 안승주(1982), 『신한국사』, 서울: 학문사.
 유수경(1990), 『한국여성양장변천사』, 서울: 일지사.
 유희경(1981), 『한국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유희경(1980), 『한국복식사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이광린(1981), 『한국사강좌 V, 근대편』, 서울: 일조각.
 이광린(1984), 『歷史로 본 韓國文化史』, 서울: 일지사.
 이광린(1986), 『韓國開化思想研究』, 서울: 일조각.
 이광린(1986), 『韓國開化史의 諸問題』, 서울: 일조각.
 이기백(1978), 『韓國史新論』, 서울: 일조각.
 이기백(1996), 『우리 역사의 여러 모습』, 서울: 일조각.
 이선근(1978), 『한국사, 현대편』, 서울: 을유문화사.
 이선근(1978), 『한국사, 最近世編』, 서울: 을유문화사.
 이현종(1982), 『19세기 후반의 한국, 大世界史』, 서울: 태극문화사.
 이호재(1972), 『개화기 여성의 사회 진출, 한국 여성사』, 서울: 이화여자

대학교 출판부.

이효재, 김주숙(1978), 『한국 여성의 지위』,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임두빈(1998), 『한국미술사 101장면』, 서울: 가람기획.

전완길(1987), 『韓國化粧文化史』, 서울: 열화당.

전완길 외7인(1995), 『한국생활문화 100년』, 서울: 장원

조선어학회(1949), 『조선말큰사전(2)』, 서울: 을유문화사.

조용진(1999), 『얼굴 한국인의 낮』, 서울: 사계절

조인규(1933), 『조선미술사』, 서울: 학민사

조효순(1988), 『한국복식풍속사연구』, 서울: 일지사.

中央日報(1992), 季刊美術, 『人物畫』.

중앙일보(1985), 『韓國의 美20』, 서울: 中央日報社.

한국잡지협회(1995), 『한국잡지 100년』, 한국잡지협회.

古典

金富軾, 三國史記, 서울: 근택서점, 1944.

東國輿地備考

憑虛閣 李氏, 閨閣叢書

鄭良婉 譯(1975), 閨閣叢書, 서울: 寶晉齋

徐兢, 高麗圖經

영인 민족문화추진위원회(1977),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영인 민족문화추진위

원회

女容國平亂記

閔濟 譯(1996), 女容國傳, 韓國漢文小說選,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李瀾, 星湖僿說, 서울: 경인출판사, 1978.

一然, 三國遺事

2. 학 위 논 문

강완석(1981), 「개항에서 庚戌國恥에 이르기까지의 일본 침략의 특질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상향(1998), 「개화기 여성관의 변천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선영(1992), 「東·西洋化粧文化에 關한 研究-14C~18C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용미(2000), 「해방 이후 한국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란(1981), 「한말 기독교 사회의식과 항일의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희숙(1998), 「20세기 한국과 서양의 여성 化粧文化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고주미(2000), 「패션의 수용과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라현숙(1999), 「韓國 化粧史-粉(Powder)의 傳統史的 考察-」,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보건환경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보영(1997), 「한국, 중국, 일본 여성의 색조 화장문화」,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용옥(1995), 「1920, 1930년대 여성잡지 《부인》과 《신여성》」, 「한국

- 여성 항일운동사 연구」, 지식산업사
- 신가람(2000), 「생활한복의 형성배경에 대한 사회적 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민정(1991), 「우리나라 전통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왕지연(2002), 「한국 개화기 남성복에 영향을 미친 일본, 서양의 남성복」,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자(1971), 「한국 여성 잡지의 역사적 고찰」,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소연(2001), 「傳統 化粧材料의 變遷과 化粧法에 關한 研究」, 대구가톨릭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옥진(1979), 「여성잡지를 통해 본 여권 신장-1906~1929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옥(1973), 「개화기의 우리나라 복식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미숙(2002), 「정월 나혜석의 개화기 여성계몽 교육이념 및 실천활동 분석」,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윤정(1996), 「개화기 복식의 변천에 관한 고찰」,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별(1996), 「20세기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경(1997), 「한국여성의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여성잡지 미용 기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민자(1989), 「개화기 여성의 사회참여에 관한 연구-1898~1910여성단체 활동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인자(2001), 「한국 화장문화의 연대기적 변천특성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김은주(1989), 「한국 전통화장 풍속사에 관한 연구」, 복식학회지 5호, 13호

이경자, 송민정(1991), 「우리나라 전통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복식학회지 17호

일본 전보통신사 신문총람 1927/1936

『別乾坤』(1977)(影印本), 景仁出版社

『新女性』(1982)(影印本), 現代社.

대한매일신보

독립신문

東亞日報

매일신보

조선일보

皇城新聞

II. 국외문헌

1. 일본문헌

久下司(1970), 「化粧」, 東京: 日本法政大學出版局

久下司(1993), 日本化粧文化史研究, 東京: 坪城五年
日本書紀(下), 岩波書店, 1987

2. 중국문헌

三國志 東夷傳

三才圖會

魏徵 等 編(1973), 隋書, 북경: 중화서국

新唐書

魏志 東夷傳

後漢書

ABSTRACT

A study on Korean Cosmetic Culture of the first period of the 20th century

Ju, Eun-Kyung
Major in Make-up Art
Dept. of Fashion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Fine Arts
Hansung University

In this thesis, this researcher examined the cosmetic culture of Korea before the 20th century on the premise that the change of cosmetic culture is based on the reflection of sociocultural factors for the purpose of studying the cosmetic culture of Korea during the first period of the 20th century, analyzed the background of cosmetic culture by classifying the period background during the first period of the 20th century with diverse sociocultural backgrounds greatly and relating it to cosmetic industry, and studied the change and feature through the concrete influence that this situation had on cosmetic culture.

Since cosmetic started with the history of mankind, the concept of cosmetic in the tradition of our country was used with respectively different vocabularies in accordance with the degree of decoration.

And, the word, cosmetic was flowed in from Japan after the flowering time

and it came to be a common use language, show started to be universalized gradually.

In addition, the cosmetic culture of Korea has changed, reflecting the culture ideology and aesthetic sense of the period, as it was created and changed in the political and historical relation of society.

The cosmetic culture of Korea which has continued for several thousand years since Chosun society which met the opening of a port started the cultural contact with the West with the Political Reform in 1984 started to show started to show the aspect of change.

Especially, the cosmetic culture of Korea during the first period of the 20th century has close relation with the expansion of education related to women who are the subject of cosmetic action, the social advancement of women which is based on it, the change of value recognition of period, and the development of economy and industry.

And, it is the period when the existing recognition that cosmetic has been treated like the exclusive possession material of kisaeng traditionally in this background came to change gradually.

Thus, it was expanded to new women and housewives gradually also.

Since the beginning of the first period of the 20th century, the cosmetic industry of Korea experienced great change.

Conventional cosmetic industry declined after the opening of a port because of the fact that self-sufficient economy system and market failed to develop before the 20th century and the limit of manufacturing method of cosmetic

etc., but other homemade cosmetics including Japanese mint powder which formed the cornerstone of development of our cosmetic industry of today was manufactured after the Political Reform in 1984 which became the decisive momentum in the history of cosmetic development, and the existence of cosmetic company of Koreans which was founded since the beginning of 1930-1940 contributed toward the industrialization and development of cosmetic.

However, cosmetic was manufactured on the scale of home manual industry without present permission procedure or facilities standard, and quality inspection.

As for then cosmetic sales, store sales increased, the sales of distribution method appeared, and it was circulated through the storekeeper and the peddler of a fancy goods etc.

In addition, while cosmetic advertisement decorated newspaper, magazine and space, cosmetic culture had influence on generals.

Since Koryo period before the 20th century, stage cosmetic of kisaeng and the thin cosmetic of wives of middle class home were made.

And, in Chosun period, cosmetic became dual into the make-up of women at middle class home and that of kisaeng.

Then, it is being shown that the social position or viewpoint of women could be revealed through differentiated cosmetic method from the period.

This phenomenon was linked to the cosmetic culture during the first period of the 20th century.

Thus, that the remnants have been left in the consciousness of people up to now became the negative element of development of cosmetic culture of Korea.

During the first period of the 20th century, while the new style cosmetic and the new style of cosmetic method were introduced, cosmetic culture met another aspect by the dual tendency of new style cosmetic and traditional cosmetic.

While the new style of cosmetic method was in vogue, power was applied milk-white, the color of lipsticks became thick, and the fragrance of perfume and soap became thick.

However, this vogue of new style of cosmetic method was not accelerated and it faced the limit of popularization.

Then, the cause was because it was in vogue by new women, kisaeng and prostitute who are working women, and movie star etc.

By the praise of free love of partial new women and the criticism for it, women who made up with new style were designated as inconstant lovers or sexually disordered women.

That the women at middle class home evaded cosmetic so as to be differentiated from them brought the result that the cosmetic distinction was deepened.

And, as bringing the awakening of race after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regarded civilization style just as Japanese style, the repulsion for Japan impeded the vogue of new style of cosmetic.

In addition, the articles of mass media emphasized thin cosmetic and cosmetic which doesn't seem to be young day after day.

And, the phenomenon of vogue follow of new women which was referred to as angled texture was not regarded good for the most part and it was regarded as the subject of reproach of society.

Thus, there was limit in the popularization of new style of cosmetic.

But, cosmetic which had the meaning of dressing until those days was transfigured into the cosmetic as the total fashions such as face, skin management, dress, dress and its ornaments, and hairstyle etc., while it changed into the meaning of decoration.